
1991年度行監行政事務監査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企劃管理室

日時 1991年12月4日(水)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10時 19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尙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企劃管理室所管에 대한 서울特別市議會的 行政事務監査를 繼續하도록 하겠습니다.

開議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어제도 企劃管理室長과 所管部署의 關係官 여러분께서 하루종일 委員들의 質問 諸般事項에 대해서 答辯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더욱 충분한 資料와, 어제 또 質問한 內容에 대한 答辯을 먼저 企劃管理室長께서 해주시고 오늘도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 조금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우리 委員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울市民의 편에서 가장 客觀性있게 오늘 監査를 進行하도록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께서도 어제 정말 熱과 誠意를 다해서 우리 十萬選良의 資格으로 市民의 궁금한 點 또는 그 동안, 4個餘月이 지나는 동안 議政生活을 통해서 보고 느낀 點, 궁금했던 點을 소상히 質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더더욱 궁금한 諸般問題에 대한 것을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께서 어제 質疑에 대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質疑는 兪相根 委員께서 質疑하신 祭其洞 1,2,3地區 住居環境改善事業 推進經緯와 李聲九 委員이 燒却場 等 投資事業 分析資料에 대한 것, 崔明鎭 委員께서 5次 公有財産管理計劃 事前 財務局과 協議에 대한 問題, 金順愛 委員께서 都市計劃研究 報告書 中 50億원, 60億원을 들여 用役 實施後 發表하지 않은 經緯, 金炯奎 委員의 2000年代 都市基本計劃 中·長期 財政計劃에 대한 것을 企劃室長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어제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事項 가운데 資料 未備로 해서 答辯을 드리지 못 했던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 追加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相根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祭其 1,2,3地區 住居環境改善事業에 대한 推進經過입니다. 그 主要現況은 東大門區 祭其洞에 第1地區, 2地區, 3地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第1地區는 建物이 107棟에 405家口가 居住하고 있고, 第2地區는 439棟에 1,023家口, 第3地區는 151棟에 598家口가 있습니다.

事業의 施行方法은 現地改良方式으로 施行토록 3個地區가 똑같이 指定되어 있습니다. 推進經緯를 말씀드리면 第1地區는 90年 10月 13日 建設部告示로 地區指定을 받았고, 역시 第2地區도 10月 13日 같은 日字로 地區指定을 받았습니다. 第3地區만은 금년도 4月 2日 地區指定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第1地區는 事業計劃 用役이 금년 9月 23日 第2地區와 함께 事業計劃 用役이 完了가 되었고, 第3地區는 금년 12月 20日 完了될 豫定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供覽公告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供覽公

告는 第1地區는 금년 12月 10日頃 第2地區와 함께 供覽公告 豫定으로 있고, 第3地區는 92年 2月初에 供覽公告가 나갈 豫定으로 되어 있습니다. 現在까지 推進狀況은 第1,2地區에 있어서 91年 9月 23日 東大門區廳에서 事業計劃 用役을 完了해서 91年 10月 4日 市廳 住宅改良課에 報告한 것을 都市 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 第6條에 의거해서 用役 計劃案의 分野別 適正與否를 有關部署에서 檢討中에 있고, 第3地區는 現在 東大門區廳에서 事業計劃을 用役中에 있습니다. 앞으로 市 都市委員會에 上程해서 議決이 되면 92年 3月이나 4月頃에 告示가 되고 事業施行은 그로부터 즉시 地域의 形使에 따라 準備되는 대로 着手가 될 그런 豫定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李聲九 委員님께서 燒却場에 대한 投資事業 分析을 質疑하셨는데, 긴 內容은 나중에 文書로 드리겠습니다만, 當初에 豫定했던 中繼處理場과 그 다음에 그 中繼處理方式에 의한 것과 燒却處理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差異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結論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中繼處理를 하는 경우 噸當 1萬 6,650원이 必要합니다만 燒却處理를 하는 경우 1萬 6,400원으로 지금 分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施設投資費와 輸送費 또는 燒却費가 있고 그 다음에 投資費 比率과 減價償却費, 運營費가 이속에 또 包含되어 있으며 中繼處理의 경우 埋立費와 埋立場 土地費 이런 것 등이 아울러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燒却處理의 경우에는 減價償却費가 특별히 중요한 分野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熱販賣에 의해서 收益이 생기는 그러한 效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其他 說明內容에 대해서는 委員님께 別途로 資料로 提出해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崔明鎭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다섯 차례에 걸친 公有財産管理計劃을 企劃管理室의 協議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地方自治團體는 公有財産을 管理處分함에 있어서 地方財政法 第27條, 市 財務會計規則 第27條 規定에 의하여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每年 計劃을 樹立하고 議會의 議決을 받아 取得, 管理, 處分함에 있어 事前 企劃管理室長의 合議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울市는 91年 同 管理計劃을 樹立·執行함에 있어 總 다섯 차례에 걸친 計劃變更을 하면서 豫算과 關聯된 事項이면서도 追更豫算을 編成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事項을 事前 企劃管理室에서 合議한 事實 與否를 물으셨습니다.

公有財産의 管理와 處分은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바와 같이 地方財政法 第77條의 規定에 따라서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每年 計劃을 樹立하고 議會의 議決을 得한 後 그에 따라 管理 處分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市 財務會計規則 第27條에 따라서 企劃管理室 事前協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節次와 規定에 따라 市財務局에서는 91年度 豫算에 策定된 財産賣却收入을 충당코자 財産賣却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執行해 오던 中 賣却與件의 變更에 따라 지금까지 總 다섯 차례에 걸친 計劃修正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當初公賣하려고 하던 物量이 全量 公賣되지 않았다는지 또는 다른 사정이 생겼다는지 하는 여러 가지 理由로 해서 計劃物量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에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市議會의 議決은 地方議會의 構成 以前까지는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附則 第3項에 의거해서 市長의 方

針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市議會의 構成 以前인 4次 計劃까지는 市長 方針으로 變更 決定을 했고, 市議會構成 以後인 5次分은 지난 10月 臨時會에 上程해서 決定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關聯해서 追更豫算을 編成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 豫算은 量入計出의 原則에 適用되는 것으로써 歲人과 關聯한 追更要因은 크게 歲人の 重大 缺陷이 發生해서 부득이 歲出을 縮小시켜야 할 必要가 發生하거나 또는 歲入徵收要因과 아울러 歲出 徵收要因이 同時 發生할 경우 豫算規模를 늘려야 할 必要가 發生하는 경우에 追更豫算을 編成하게 되는데 91年の 경우 다섯 차례에 걸친 變更 內容上 豫算對比 歲入 減少要因이나 徵收에 따른 追加歲出 編成의 必要性이 없어서 追更豫算에 反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管理計劃 變更時 事前 企劃管理室 協議를 받는 問題는 總 다섯 차례 計劃 中 4次分은 合議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財務局 獨自 決定事項으로 合議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追後 이러한 事例가 再發치 않도록 關係部署에 철저한 注意를 喚起해서 再發하지 않도록 하는 措置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順愛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都市計劃用役 研究報告書를 發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전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市 都市基本計劃은 1980年代 初에 1989년까지 10餘年間 서울大 環境大學院이 주축이 돼서 2次 補完을 거쳐 89年 11月 21日과 90年 5月 11日 사이에 國內外 專門家와 關聯部處間의 意見을 聚合, 調整 計劃案을 作成해서 對市民 公聽會와 서울 市 및 建設部 中央都市委員會 審議를 거쳐 작년 5月 11日 確定해서 8月 16日 公告 第479號로써 確定 發表를 했습니다.

여기에 所要豫算은 1億 5,000萬원이 投入되었습니다.

다만, 50億원 내지 60億원의 都市計劃用役費가 消耗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최근 各 區廳別로 2億원 내지 3億원 豫算을 投入해서 區 單位 都市基本計劃을 樹立토록 지금 指示가 되어 있어서 이는 期間中 '86, '88 國際行事 및 分 區 等에 따른 現격한 都市與件 變化와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區政運營의 基本指針 및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現在 各 區廳別로 設計審査 中이며 금년말 以內로 全 區廳이 作業에 着手할 것으로 展望이 됩니다. 同 計劃이 作成되면 公聽會 等を 통해서 地域住民의 意見을 收斂하고 區 都市整備委員會의 諮問 및 市議會의 意見聽取 過程을 거쳐서 市 都市計劃委員會에서 審議 確定하게 됩니다.

그래서 金委員님께서 質疑하신 5·60億원을 들여서 用役을 實施하고 있다 하는 事項은 지금 제가 答辯드린 대로 各 區에서 2·3億원 정도의 豫算을 들여서 各 區別 都市整備基本計劃을 作成하는 그것에 대한 總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答辯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韓國基督敎會館의 交通影響評價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韓國基督敎會館의 交通影響評價書는 交通影響評價를 해 달라고 市에 接受한 것은 89年 2月 2日입니다. 事業施行者는 基督敎會館新築委員會가 되겠고, 評價機關은 市立大學校附設 首都圈開發研究所에서 用役을 實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交通影響評價를 89年 2月 11日 實施했는데 交通影響評價審議議決書에 보면 地下 5層, 地上 17層에 延面積 3萬 4,000m²를 建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審議해 준 主要內容을 보면 駐車臺數確保를 위한 駐車場 面

積과 그 다음에 그 周邊 交通與件을 勘案한 自動車的 進·出入 動線을 어떻게 決定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決定을 했습니다.

그 評價書 內容에 보면 駐車場의 경우는 法定 駐車臺數, 소위 義務的으로 駐車臺數를 確保해야 될 臺數가 166臺인데 交通影響評價審議議決書에서는 235臺가 必要하다 이렇게 評價所에서 事前에 評價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交通影響 評價審議委員會는 그보다 32臺가 더 많은 267臺를 確保하도록 議決을 했습니다.

그리고 大學路와 昌慶宮路를 東西로 連結하는 20m 計劃道路 開設 前과 後로 區分해서 進·出入 動線을 區劃하도록 이렇게 審議 議決을 했습니다. 그래서 計劃道路 開設 前과 計劃道路 開設 後로 나누어 進·出入 動線을 해 주었는데 이 事項에 대해서는 나중에 交通影響評價書를 한 部 金委員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炯奎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健全財政을 維持하기 위해서 2000年代 都市基本計劃이라든가 都市 中·長期 財政計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施政演說 2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中期 財政計劃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事實上으로 地方財政法 第16條 規定에 따라서 地方財政計劃을 樹立해서 地方議會에 報告하도록 規定을 하고 있기 때문에 具體的인 報告方法이라든가 또는 時期와 節次規定이 明文化되어 있지 않은 狀況속에서 저희가 獨自的으로 만들어 計劃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自體計劃을 單純한 報告로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초에 일찍 이런 財政計劃을 세워 地方自治時代에 걸맞는 그러한 合理的인

計劃案을 짜서 市議會에 報告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審議를 거쳐서 確定을 할 그런 計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가운데 都市計劃基本計劃과 中期 財政計劃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委員님들에게 저희가 다 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샘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잠깐 委員님들에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資疑에 대해서 특히 重複된 質疑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한 各自 委員여러분들께 質疑하실 機會를 다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機會均等의 原則에 의해서 고루고루 드릴 테니까 한 委員이 가능한한 質問을 要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委員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行政事務監査에 대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에 대해서 궁금한 것 質疑 좀 하시겠어요?

(「네」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세요.

○崔明鎭 委員; 조금 전에 室長께서 答辯 中에 5次 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해서는 協議를 못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그렇게 重要的한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을 못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警告措置 그 정도로 끝날 事案이 아닌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다른 具體的인 얘기를 못해 보았습니 다만 議會에 同意要請을 내니까 議會에서 그 役割을 대신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곧바로 議會에 上程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리고 4次까지는 協議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協議를 받았다는 根據書類는 提示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4次까지는 協議를 받으셨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4次分만 받았습시다.

○崔明鎭 委員; 4次分만, 1·2·3·5次分은 못받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行政이 執行되고 進行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이 뭐 변명 같습시다만.....

○崔明鎭 委員; 여기 條例에 나와있지만 워낙 이 事案은 重要하기 때문에 豫算擔當官까지가 包含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豫算擔當官과 事前協議해야 된다고 條例에 분명히 明示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입시다만, 室長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러한 狀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시다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시다만 지금까지 예로 보면 當初 豫算에 稅外收入, 소위 市稅財源으로서 마련되는 包括적으로 規定된 範圍 內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財務局 싸이드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러한 點에 대해서.....

○崔明鎭 委員; 지금 答辯하신 內容 中에서도 1次부터 5次까지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이 市稅 公有財産 원래 計劃案에 賣却이 低調해서 管理計劃이 變更된 것이 아니고 買受者의 要請이나 懇請이나 民願에 의해서 한 것이었음이 財務局 豫備審査에서 確認이 된 內容입니다. 豫算과는 전혀 關聯이 없고 事業 豫定과도 하등의 關聯이 없는 것이 確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問題를 指摘을 하고, 이 公有財産管理計劃 變

更이라는 것은 워낙 重要的 事項이기 때문에 每年 2月末까지 그 해 管理計劃을 해야 될 事項들에 대해서 處分이든 賣却이든 2月末까지 確定해야 되는 所以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장이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좋은 指摘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

서울시의 살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地方財政法 第16條에 의한 中·長期 財政이나 또 中·長期 財政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都市의 機能別 基本都市計劃도 基本計劃이 반드시 있음으로 해서 中·長期 財政計劃이 確固不動하게 세워져서 이것이 정말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大韓民國의 首都요, 國際的인 都市라고 하는 觀點에서라도 이러한 計劃이 先行的으로, 또 우리 地方財政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地方自治法이 생김으로 인해서 금방 만들어진 法도 아니고 상당한 時日에 걸쳐서 있는 地方財政法上의 中·長期 財政計劃이 지금까지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금 室長의 答辯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中·長期 財政計劃이 樹立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95年度까지 中期計劃은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95年度까지 中期計劃.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中期計劃은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地方財政法 第16條에는 中·長期 計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長期計劃은 없습니다. 20年 週期計劃은 없습니다.

○金炯奎 委員; 長期計劃은 없고, 中期計劃 基準年度가 언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91年度이지요.

○金炯奎 委員; 91年度부터 95年度. 그 以前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 以前에는 그 以前 대로 있었지요.

○金炯奎 委員; 그 以前에는 그 以前대로, 그러니까 中期 財政計劃, 5年單位의 財政計劃이되어 있다. 그러면 91年度부터 95年度의 中期 財政計劃은 確定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確定이 되어 있으면 都市機能에 따르는 基本計劃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都市基本計劃이 있지요.

○金炯奎 委員; 都市基本計劃도 95년에 해당하는 中·長期 財政計劃과 맞먹는 그런 年度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都市基本計劃은 어떤 基準年度를 딱 몇 年度로 못을 박을 수는 없고 2000年代를 향한 都市의 基本構圖 그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都市機能에 의한 都市計劃이 確立이 됨으로 인해서 地方財政計劃이 樹立되고, 그 地方財政計劃이 每年度마다 編成되는 서울시 豫算에 反映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計劃이 95年度까지 確定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91年度 基準年度에 의해서 95年度에 대한 中期 財政計劃을, 計劃書を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確認을 해야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여기 이것이 中期財政計劃입니다.

○金炯奎 委員; 어디 좀 봅시다.

○委員長 朴尙東; 室長님 앉아서 答辯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지요.

○金炯奎 委員; 그리고 이것이 議會에 報告하는 節次가 地方自治法에 없어서 따로 報告를 드리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말씀을 하기 위한 얘기이지 基本的으로 地方財政法에 분명히 못이 박혀져 있는 이 事項에 대해서 報告를 내년 1月로 미룬다고 하는 것도 지금 地方議會를 너무 輕視하는 그런 立場이, 室長의 態度가 아닌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最小限 法에서 얘기하는 것 또 條例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事項은 議會에 報告할 事項, 議會의 執行을 同意할 事項, 變更할 事項 이러한 모든 것은 最小限 企劃管理室에서 垂範을 보임으로 해서 以下 傘下機關에서 法을 執行하는데 올바른 判斷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違法不當한 모든 일이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서울시內 善良한 住民보다도 더 違法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善良한 사람이 모르고 違法不當한 일에 制裁를 가하는 이러한 일이 서울시에서 오히려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內務行政은 우리가 大學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造作行政입니다, 豫防行政입니다. 서울시 地方公務員의 態度는, 지금 準司法的 行政이 오늘날의 地方行政의 實態입니다. 豫防하지도 못하고 指導해 주지도 못하면서 自己 責任回避를 피하기 위해서 告發하고 또 告發해서 벌금물고, 또 조금 있다 告發해서 또 罰金 올리고 이러한 地方行政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實態입니다.

이러한 觀點을 重視여겨 앞으로 企劃室長은 서울시의 가장

垂範的인, 또한 企劃室長과 같이 하고 있는 그 職員들은 가장 優秀한 머리와 實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서울市의 重要職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先導하고 좋은 方向으로 指導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피만 가르치고, 要額만 가르키고 이러한 것이 보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金委員님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金炯奎 委員;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室長께서 答辯한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答辯할 지 모르겠습니다"또 "제가 答辯할 立場이 못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公務員이, 서울市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地方政府, 거버먼트, 어떻게 企劃管理室長이 最小限의 決定權은 있어야 되는데 政府의 눈치를 보거나 市長의 눈치를 보거나 이러한 立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企劃室長 以下 局長은 責任있고 所信있게 하는 姿勢를 가짐으로 해서 서울市民이 좀 더 복된 地方政治時代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얘기한 서울市 都市基本計劃도 또 中·長期財政計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問題는 明年 1월에 報告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에 檢討하기로 하고, 우선 모양이라도 보니까 한결 서울市民이 지어준 무거운 本委員의 責任이 輕減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作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室長님 앞서서 答辯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委員 여러분께서는 質問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해 주

시기 바랍니다. 李秉守 委員.

○李秉守 委員; 李秉守 委員입니다. 우리 企劃管理室의 業務가 어떤 意味에서 보면 그 機能이 서울市政을 總括하는 部署인 것 같지만 실제 現役部署가 따로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의 機能에 맞게 알맞는 몇 가지 政策質問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市가 1室 15局, 本部長制, 事業所別로 이렇게 分類되어 있지요. 그러면 各局別로 業務에 대한 政策을 決定하기 위해서 政策諮問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設置 運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財務經濟委에 關聯되는 것으로 契約審査委員會라든지 低價審議委員會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職制上에 淸掃事業本部가 새로 設置된다, 市政開發研究院이 새로 設置 運營될 檢討計劃이 있다 하는 이런 等等의 얘기가 나와 있고, 受監資料에도 建設技術審議會 같은 것, 하여튼 各種 政策審議委員會라는 것이 現在 設置 運營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더 擴大해서 서울市政의 政策을 決定하는데 도움이 되는 諮問資料를 구하고자 하는 趣旨, 制度 自體는 저는 높이 評價합니다.

本委員이 序論을 펴는 理由는 우리 理解와 地方自治團體를 對立의 關係가 아니고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면서 合理的으로 市政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어떤 政策을 開發하자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市의 경우에 運營委員會는 別個이지만 9個의 常任委가, 이렇게 自治團體의 機能에 맞게 常任委가 分類되어 있듯이 市가 政策諮問委를 設置 運營하고 있는 委員會에 가령 主務局長이 審議委員長이 된다든지 해서 關聯部處의 局長, 그 다음에 諮問教授 혹은 各界 社會團體의 著名人士 이러한 분들을 審議委員으로 委囑을 해서 運營을

하고 있는데 우리 市議會 議員을, 많은 숫자는 안 되지만 最小限 常任委員로 한 사람씩 設置 運營하고 있는 審議委員會에 委員으로 委屬할 수 있는, 그러한 制度를 開發해서 設置 運營할 用意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契約審查委員會라든지 低價審議委員會에 우리 財經委所屬 委員 한 사람이 그 委員會에 委員으로 參席을 했을 때 비록 우리가 아무 專門性이 없더라도 그 制度가 명실공히 討論을 위한 合理的인 政策을 討論하는 機構로 運營하는 것이냐, 들러리로 運營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自體만으로도 監視·統制機能이 있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市 幹部會議에서 한번 議論을 해서 制度上에 問題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參與의 폭을 制度的으로 길을 터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希望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本委員이 지난 9月 本會議質問때 나온 자료와 이번 行政事務監査에 對備하기 위해서 事前에 要求한 資料에 의하면 一般競爭과 隨意契約으로 執行된 實績의 데이터가 거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隨意契約의 경우에 設計價와 執行實績間의 節減幅이 一般競爭보다는 低調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一般 隨意契約을 해야 할 契約의 特殊性, 事業 主體側에서 왜 制限競爭 혹은 指名競爭 혹은 隨意契約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事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그러나 豫算을 執行한 結果論的인 數値를 가지고 對比를 해 볼 때 一般競爭이 豫算을 節減한 폭이 두 배가 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豫算節減面에 立脚해서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폭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는 方向으로 運營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問題는 내일 제가 財務局 質疑때 入札制度

問題와 關聯해서 다시 한 번 質疑를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企劃管理室과 財務局이 聯關되는 問題이고 해서 제가 일단 質問을 던지는 것인데 내일 財務局의 質疑內容하고 묶어서, 역시 總括部署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에서 入札制度 改善에 대한 問題도 역시 진지하게 한 번 더 檢討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지금 이 자리에 電子計算所長 나와 계시지요?

○雷子計算所長 權五鹿; 네.

○李秉守 委員; 저희들이 지난번 電算化 現場을 다녀온 바도 있고, 가서 많은 것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市政의 科學化, 效率化를 위해서 電算化로 運營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느낀 바도 많고 참 좋습니다. 豫算面에서 보니까 약 400億원 정도를 내년에 割愛해서 新築도 하고 그럴 모양인데 지금 電算化를 하는 業務過程中에 한 가지 矛盾을 제가 發見했어요. 統合公課金制度 中에 지금 實地室長님이나 電算所長께서도 實地 이것을 管理하고 있으면서도 모르실지 모릅니다. 統合公課金 中에 서울시 全域에 共同住宅 아파트 여기에 清掃用役者가 各 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許可를 받아 쓰레기 用役을 代行을 하는데, 서울시 清掃를 100% 直營을 하는 것이 아니고 部分的으로 免許를 내주어 收去를 하고 있는데, 이 個人會社가 收去하는 用役費를 統合公課金에 收金 代行役割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많아 容量이 不足한데 서울시에서 꽤 個人會社의 收金社員 役割까지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主務局에 한 번 물어보았어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했느냐 물어보았더니 쓰레기 用役會社

에서 單獨住宅의 경우에 不當한 돈을 要求한다든지 하는 不條理가 있어서 이것을 統合公課金으로 制度化했습니다하는 궁색스러운 答辯을 했는데 그런 面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에 불과하고 나쁜 점은 두 가지, 세 가지 더 큰 面이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用役 免許 自體가 特惠입니다. 區域을 整理해서 一定한 業者에게 限定해서 "이것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自律化 時代인데 特惠를 준 것까지는 좋은데 統合公課金으로 制度化 해 버리고 나니까 最小限 이틀에 한 번씩 와서 收去를 해야 하는데 3日, 4日이 되어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各 管理所에서 한 달에 한 번씩市에서 曜日을 정해 준 範圍內에서 3,000萬원, 5,000萬원, 1億원 이러한 식으로 收去料를 주는데 돈을 支拂하는 카드를 쥐고 있을 때에는 잘 못 되었을 때에 그것을 是正할 수 있는 牽制의 카드로 活用할 수 있는데 統合公課金制度로 바뀌고 나니까 牽制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用役 自體도 市에서 業者들 要求만 들어서 策定해서 決定을 하고 있고, 돈을 주는 사람은 아무런 그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이래서 이 問題는 市에서, 全國의 自治團體의 共通된 事項입니다. 아파트團地의 統合公課金制度도 그렇고 免許 自體가 制限되고 있는 것도, 이래서 이것은 긴 眼目에서 오히려 原狀回復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왜 제가 枝葉的인 問題를, 財經委 問題하고 關聯이 없는 質問을 하느냐 하면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電算化 問題와 關聯해서 그런 收金 代行役割을 해 줄 정도의 容量이 있으면 이 時點에서 우리 서울市가 안고 있는 各種 圖面 있지요? 이 重要的 圖面이, 예를 들어 어떤 緊急 火災가 났다, 무슨 災難이 發生했을 때 찾는

다고 亂離가 날 것입니다. 지금 重要的 圖面이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配置가 되어 있고, 管理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最小限 이게 긴 眼目에서 重要的 設計圖面 정도의 管理는 電算化 計劃으로 한번쯤 構想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느냐 하는 問題를 指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쓰레기用役 이런 等等의 얘기를 指摘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圖面 管理, 사실 제가 볼 때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電算化로 가야하는 그런 目標에서 적어도 서울市에서 이제 檢討를 해야 할 段階, 눈을 떠야 할 時期에 왔지 않느냐 하는 意味에서 저는 指摘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수고하셨습니다. 室長님 答辯…….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答辯을 드리고 넘어가지요.

○委員長 朴尙東; 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李秉守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첫째, 市議員님들을 各種 諮問委員會라든지, 審議委員會의 委員으로 委囑할 用意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問題를 한 번 自體的으로 論議를 해 보았습니다. 論議를 해서 상당히 肯定的인 幹部들의 意見을 일단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年初에 들어가면 各種 委員會의 名單을 전부 다 일괄 整理해서 市議會에 넘겨 드려서 거기서 좋은 意見을 받아서 可能하면 推薦을 받아 한 분 또는 두 분씩이라도 순수한 委員의 立場으로, 市議員님의 立場이 아니고, 委員의 立場으로 參與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트도록 努力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市稅審議委員會라든지 이러한 分科委員會에 우리 財務經濟委

員會 委員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委員會에 參與해 주시면 나오셔서 委員님들 相互間에 충분한 對話도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市政開發研究院 條例案이 上程이 되었습니다만 그 理事 가운데 市議會 議長님이라도 한 분 研究院의 理事님으로 모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 번 해 보고 있는 그런 狀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一般競爭 件數와 隨意契約 件數에 있어서 一般競爭이 물론 자기들 業體의 수주량을 늘리기 위해서 金額을 豫定價格보다 많이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豫算節減 側面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逆作用은 역시 不實한 工事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憂慮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憂慮를 不信하고 일단 隨意契約을 계속 抑制해 나가고 있습니다. 抑制해 나가고 있는데 부득이 해서 豫算會計法이 정한 少額單位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隨意契約을 하게 되니까 件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나 金額으로 보면 10% 未滿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주 微微한 金額인 것을 參考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入札制度 改善에 관해서는 보다 더 깊이있게 研究를 해서 議會에 한번 여쭙어 볼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統合公課金を 賦課하는 過程에 代行業體 收去手數料가 包含되어 있는 것이 좀 問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收去料, 汚物收去手數料에 대한 徵收權者는 自治團體長입니다. 그러니까 代行業體長 名義로는 告知書 發給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데 實例로 狎鷗亭洞에 있는 현대아파트 自治管理會長을 제가 6年間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 內容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1년에 한 1億원 정도 나갑니다, 쓰레기
用役의 手數料조로. 그런데 이것이 언제 統合公課金으로 바뀌
었느냐 하면 89年 下半期입니다. 그러니까 약 2年 거의 되었
습니다. 그 전까지는 每月 直接 주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個別的으로…….

○李秉守 委員; 直接 주다가 統合公課金으로 어느날 轉換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實際 그 內容을 제가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그 問題는 檢討를 해서
앞으로 改善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李秉守 委員; 그것을 앞으로 民間人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料率도 물론 公益性的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料率을 市에서 정
해주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돈을 주고 받는 問題는 맡겨 주
자 이것이지요, 이 문제를.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리고 아울러 圖面管理를 電算化 해
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市가 道
路에 대한 各種 施設物이라든지 埋設物, 또 道路의 現況 이것
을 電算化하기 위한 作業을 이미 着手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한 2年 정도만 지나면 지금 各 區別로, 自治區別로 해
나가고 있는데 市에서 主管하고 있습니다만 完全히 컴퓨터로
收錄을 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部分의 番地數만 누르면 그 周
邊 一帶의 道路, 地下, 地上의 모든 狀況이 確然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심지어 버스 停留場까지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상세히 調査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尚東 委員長, 李聲九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李聲九; 네, 崔明鎭 委員.

○崔明鎭 委員; 지금 企劃管理室長께서 答辯을 要點 爲主로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注意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委員長께서는 우리 委員들에 대해서 質疑나 말씀이 너무 길고 장황하다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라고 注意를 喚起시켰습니다만 答辯者의 姿勢도, 答辯 內容도 要點 爲主로 간단 명료하게 해서 效率的이고 能率的인 監査가 進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한정된 時間에서 監査를 進行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注意를 喚起시켜 줄 것을 委員長에게 議事進行發言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聲九; 네, 企劃室長님 좀 參考하셔서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聲九;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그럼 金順愛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順愛 委員; 企劃室長님께서 조금 전에 答辯하신 것, 저는 어저께 80年度 後부터 90年度까지에 대해서 서울特別市 都市技術用役 일환으로 모처와 契約書 締結後 그 計劃書を 그대로 發表하셨는지, 또 왜 發表를 앞으시고 막대한 金額을 들어서 研究費로 用役을 주셨는지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答辯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년에 50億원 내지 60億원을 들어서 研究費로 用役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消却處理 하셨다고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0年度에서 90年度까지 都市計劃研究用役費 그 말씀을 아까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都市計劃研究 用役費가, 예를 들어 50億원이 들어간다면 80年度에서 90年度까지만 해도 5,000億원이 아닙니까, 그런 研究 用役費를 갖다 專門研究에 주셔서 反映을 하시든지 아니면 技術, 그야말로 쓸 수 있는 專門人에게 맡기든지, 研究만 해오셨지 지금까지 하나도 發表를 안 하셨지 않아요, 약 10年間을.

조금 전에 말씀이 지금에 와서 區廳別로 2·3億원 내려보낸 것 그것으로 答辯하셨는데, 저는 지금 區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묻지도 않았습시다. 答辯의 方向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계셔요. 80年度에서 90年度까지의 都市計劃技術用 役費가 얼마나 그렇게 저는 물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80年에서 90년까지 10年 동안에 用 役費로 나간 돈이 얼마나 그 말씀이십니까?

○金順愛 委員; 네, 어저께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室長님께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都市計劃 用役費로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都市計劃用役費는 저희가 10年 동안에 5·60 億원 그렇게 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金順愛 委員;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50億원 나간 다고 어저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제 質問에 지난 번에, 지난 해에 消却處理하셨다고 그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消却處理를 해요?

○金順愛 委員;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언제 發表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消却處理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技術用 役 某處와 契約締結을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某處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答辯을 드릴게요. 자꾸 某處라고만 그러시지 마시고..... 某處에다 10年동안 돈을 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某處가 어디인지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알지요.

○金順愛 委員; 예를 들어서 어저께 室長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專門 公務員이나 또 專門 教授님이나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必要없는 浪費 아닙니까? 事實 發表를 안 하셨으니

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發表를 한 것, 어느 것을 發表 안 했고, 어느 것을 發表하고 하는 그것이 제가 지금 얼른 理解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發表 안 했다 그 말씀이세요?

○金順愛 委員; 서울시 都市計劃審議研究 用役을 주지요, 지금 현재?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여기 冊子가 이것이 그것입니다.

○金順愛 委員; 그럼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執行을 해 오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執行이 되고, 안된 것은 제가 지금 다시 檢討를 해 보아야 되겠고.....

○金順愛 委員; 안 해 오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안 해 왔다고 할 수는 없지요. 執行하고, 이제 90年度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金順愛 委員; 그러면 10年間 研究한 것을 90年 後부터 執行을 해 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2000年代를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되고, 모래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順愛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各 區廳別로 2億 원, 3億 원 내려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따라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또 腹案대로 하실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것이, 母法이 上位計劃이 되고, 그 다음에 上位計劃에 따라 區廳別로 細部計劃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 地域 實情에 맞는. 그래서 그 細部計劃을 다시 짜서

그것이 區 自治團體別로 都市計劃委員會를 열어서 거기에서 確定을 시켜서 市 都市計劃委員會에 올리면 市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그 計劃과 그 다음에 區廳 計劃을 전부 총 망라해서 比較해 檢討한 다음에 우리가 決定할 수 있는 것과 建設部에 올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 올려서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서부터 確定이 되면 그 때 모든 것이 다 確定이 되는 것입니다.

○金順愛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제가 條例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條例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答辯을 아까 안 해주시던데요. 지난 해 多家口條例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庶民 多家口住宅을 앞으로 繼續 重課稅를 賦課시킬 것입니까? 물론 財務局 所管이겠지만 내일 財務局에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까만 條例를 企劃室에서부터 해 오시고 法務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또 묻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일단 關係部處와 協議를 다시 하겠습니다.

○金順愛 委員; 그것 보십시오. 그 말씀이 衡平이 안 맞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企劃室長님 以下 公務員들은 그냥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물론 고생을 하시겠지만 피부로 일선의 勞動者의 立場을 모릅니다. 정말 없는 사람은 平生을 가도 집 한 채 지을까 말까 하고, 물론 公務員들도 그럴 것입니다. 平生 집 한 채 사실까 말까 할 것입니다, 平生 月給을 모아도. 어렵게 어렵게 없는 돈을 해서 겨우 집 한 번 지어서 어떤 弊端이 지금 오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麻浦區 東橋洞 신형규

씨입니다. "올봄에 重課稅를 물지 않기 위해 98坪으로 許可를 得한 後 5월에 工事を 시작하였는데 工事途中 발코니部分을 방으로 工事を 하였다. 工事途中에는 욕심이 생겨 발코니를 방으로 늘렸지만 막상 짓고 보니 발코니部分의 工사로 인하여 違法建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신형규 씨의 경우에는 다행이도 발코니部分이 北쪽이 아닌 南쪽으로 斜線制限이 支障이 없고, 垜地 條件도 餘裕가 있어서 設計變更으로 맞출 수 밖에 없는 條件, 그러나 設計變更으로 3坪을 늘릴 경우 全體 延面積이 101坪이 되고 또한 자신이 거주할 한 世帶의 延面積이 25坪이 넘어버림으로써 豪華住宅으로 간주되어 取得稅 및 財産稅 등이 重課稅 對象이 되고 만다. 신형규 씨의 경우 단 1坪으로 인하여 豪華住宅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建築法上 設計變更이 適法한 경우가 된다고 해도 設計變更을 못하고 未竣工 狀態에 놓여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陳情書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條例부터, 多家口 庶民住宅 集合建물을 庶民住宅으로 봐 주실 것인가 아니면 現在 企劃室 法務官께서 만든 그 條例로 繼續 豪華住宅으로 해서 7.5倍라는 重課稅를 繼續 維持할 것인가, 그 條例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100坪일 경우 稅金을 많이 내야 약 400萬 원 됩니다. 그러면 7.5倍라면 얼마입니까? 약 3,000萬원이 넘는 額數입니다. 물론 이것은 財務局 所管이지만 條例만은 企劃室所管입니다. 이것은 條例부터 고쳐서 하나 하나 내려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答辯해 주세요. 어려우신 것은 자꾸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이 자리에서 答辯을 못 합니다. 그것은 現場에 벌써 本人이 增坪을 했다는 그 自體에서

問題가 發生을 했는데, 발코니를 방으로 늘렸다는 그 自體에서 벌써 問題가 發生이 된 것 같은데 그 現場을 踏査해서 現場을 擔當한 公務員들의 意見을 들어야지요. 企劃管理室長이 여기 앉아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答辯을 어떻게 드립니까?

○金順愛 委員;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작년에 5월에 多家口住宅에 대해서 江北의 자투리땅을 利用해서 建設部에서 延建坪 200坪까지 짓게 하였습니다, 條例에 있습니다. 200坪까지 庶民住宅으로 해서 政府에서 建設資金도 世帶當 700萬원씩 融資해 주었습니다. 特別稅도 免除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200坪까지는 庶民住宅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條例에서 12월에 이렇게 만드셔서 이분이 한 坪 때문에 重課稅를 물어서..... 200坪까지는 重課稅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法승이, 서울시條例가, 建設部에서 發表한 條例가.

그래서 제가 各 地方 道로 물어 보았습니다. 한 번 물어 보십시오. 各 地方 道에는 이런 重課稅를 發給한 일이 없답니다, 지금. 특히 서울시에만 單獨 豪華住宅으로 認定해서 重課稅를 물고 있는 것이예요, 100坪이 넘는다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李秉守 委員; 그것이 약 한달 전에 어느 日刊紙에 상세히 났는데 지금 그 業務가 都市整備委員會 所管인데 建設部和 서울시하고 協議해서 問題를 合理的으로 한다는 記事가 났는데.....

○金順愛 委員; 아니, 이 條例가 企劃室 法務官입니다.

○李秉守 委員; 그것이 서울시條例 所管이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이 內務部 準則에도 나와있고 그

렇기 때문에…….

(「委員長,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李聲九; 지금 多家口住宅 重課稅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崔明鎭 委員 말씀하세요.

○崔明鎭 委員; 企劃管理室의 主要業務計劃 中에 「奉仕市政의 現場具現」 이 項目이 있습니다. 「奉仕市政의 現場具現, 달라진 모습 피부로 느끼게 탈바꿈」 여기에 제일 큰 項目으로 「不合理的 制度改善」 나와 있습니다.

지금 金順愛 委員께서 質疑하신 그 內容들은 너무나도 現實的으로 不合理的 制度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에서 不合理的 制度를 改善하겠다고 우리에게 준 報告書에도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妥當性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서 그 많은 補佐官들 다른 어느 局이나 어느 課, 어느 室보다 많은 補佐官들을, 優秀한 頭腦를 가지고 계신 企劃管理室長께서 이것이 判斷이 그렇게도 안 가십니까?

원만하고 效率的이고 合理的인 會議進行을 위해서 賢명한 判斷과 明確한 答辯을 委員長은 促求를 해 주시고 會議進行을 가능한한 빠른 속도로 進行시켜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聲九; 企劃室長님, 多家口住宅問題는 最小限 問題가 있어 보입니다. 他局에 關與하셔서 制度改善에 한 번 神經을 써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關係局이 두세 局 걸리는데 제가 全部 會議 主宰를 해서 姿勢하게 審査를 해서 正確한 市の 立場을 다시 整理하고, 中央部處와 協議할 事項이 있으면 繼續 推進해서 지금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그 部分이 充足될 수

있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聲九; 金順愛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까?

○金順愛 委員; 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聲九; 네, 마저 하십시오.

○金順愛 委員; 條例는 各 市·道·郡으로 地方마다 條例를 정하라고 建設部에서 移牒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만 條例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인데, 이 條例를 만드시는 분이 그냥 100坪이 넘고 所有者가 한 사람이라 해서 單獨 豪華住宅으로 그냥 묶어버리신 것 같아요. 細部的으로 檢討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 個人的 생각은요. 이것은 아주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建設部에서 建築法을 만들 때 200坪 以下 해서 多家口 25坪 7홉 以下 해서 數世帶가 되었던 200坪이 되어 4世帶가 살든, 19世帶까지 입니다, 19世帶가 넘으면 事業承認을 받아야 하니까. 한 집에 4坪씩 해서 19世帶가 되든 25坪 7홉 해서 4世帶가 살든 200坪까지는 庶民住宅으로 해서 稅金도 減免해 주시고 建設部에서 建設資金도 해 주고 단, 貫만, 傳貫만 놓는, 分讓은 절대 안 됩니다, 條件附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條例를 12월에 一方的으로 만드셔서, 그러면 5월에 許可가 난 것에 대해서 無條件 重課稅가 다 된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5월에 許可가 난 것에 대해서 그 法에 맞추어서 建築許可를 맞추고 稅金도 맞추어 工事を 해 왔는데 12월에 法이 바뀌었다 해서 그 改正에 따라 그 前것을 重課稅를 문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建設部에 相議를 하셔서 100坪이 되었던 200坪이 되었던 이에 대해서는 多家口라도 豪華住宅으로, 建設部에서부터 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서울시條例가 잘못 되

었으니까 200坪, 建設部에서 建設條例 만들어 놓은 것에 맞추어서 庶民住宅, 多家口住宅은 共同複合建物 아납니까? 따지고 보면 集團建物이라고요. 庶民들이 모여사는 集團建物이거든요, 所有者는 한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庶民住宅을 만들어, 多家口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 條例를 是正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대기는 困難합니다만 一平生 夫婦가, 그 분도 公務員이예요, 내년엔 停年退職이 다 되어 갈 것입니다. 겨우 垡地를 30坪 사셨어요. 30坪 해서 多家口住宅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만드셔서 몇 모르고 竣工을 톡 내려가서 取得稅를 보니까 重課稅라 해서 몇 千萬원이 押留를 당했어요. 이분은 하루 아침에 길로 나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公務員이지만 참 이렇게 모르고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예요. 그 분의 人格을 존중해서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金順愛 委員; 한 번 地方에 여쭙어 보세요. 地方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停會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李聲九; 停會할 것 없이 점심시간이 곧 되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企劃室長께서는 多家口住宅 問題는 萬餘名 以上の 民願이 걸려있는 事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關心을 써주시고 그 結果를 財務經濟 委員會에 한 번 添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停會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李聲九; 네, 10分 停會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27分 監查中止)

(11時 39分 監查繼續)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長님들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李敏國 委員; 連日 수고 많습니다. 李敏國입니다.

家庭이나 國家나 가장 重要的 것은 財政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重要的 것은 남의 빚이라고 봅니다. 1,100萬 市民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外債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既存外債 償還計劃에 보면 外債가 약 3,800億원, 이것을 2009년까지 年 500億원씩 償還하는데 市 財政上으로 봐서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判斷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市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次元에서, 企劃管理室長이라는 次元보다는 서울特別市 市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次元에서 과연 서울시가 이 外債를 償還하는데 油印物에 나온 것과 같이 市 財政規模로 봐서 償還에 무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判斷이 과연 되는지, 우리 1,100萬 市民이 궁금히 여기고, 또 여기 계신 十萬選良이 다같이 걱정하는 이 問題를 간단하게 理解할 수 있도록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금년말 現在 가지고 있

는 外債의 總 額數는 한 2兆 6,000億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일 큰 分野가 地下鐵 2·3·4號線 建設에 投入된 2兆 1,000億원…….

○李敏國 委員; 2,480億원 地下鐵이, 地下鐵公社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지금 外債만이요?

○李敏國 委員; 네, 既存外債.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外債, 금년 말 現在 總 額數가 3,790億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로 보서는 必要不可缺한 그러한 外債를 저희가 活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2009년까지로 저희가 200億원 내지 500億원 水準으로 償還을 하게 되면 結果的으로 이 狀態는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선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外債는 들여와야 될 그러한 形便에 있습니다. 地下鐵의 追加建設이라든지 또는 下水處理場의 建設, 上水道 이런 分野에서는 계속해서 外債를 追加로 導入을 해야 될 그러한 狀況에 있습니다만 外債를 償還하는 現 狀況에서의 財政與件은 별무리가 없지만 다만, 年數가 길어지는 過程에서 저희는 이러한 論理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當代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事實上 우리가 지금 當代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財力을 가지고는 完全히 消化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世代間의 均衡配分, 다시 말씀드리면 次世代도 一部施設과 아울러 負擔하는 努力을 같이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李敏國 委員; 移管한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個人 家庭으로 보면 父母가 자식에게 빚을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個人 家庭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큰 企業으로 볼 때는 역시 負債를 같이 떠넘겨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 形使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李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대로 200億원 내지 500億원 水準을 저희가 負擔한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못한 財政속에서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財政이 나아지면 나아졌지 못하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러한 狀況속에서 200億원 내지 500億원 정도를 年間 負擔해서 갚아 나가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判斷됩니다.

○李敏國 委員; 네, 그래서 제가 이 質疑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現在 外債가 약 3,800億원만 있다고 하면 本委員이나 어느 市民도 認定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特別市라고 하는 방대한 都市를 形成하고 維持, 運營,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막대한 財源이 날로 增加되는 이 時點에, 다시 지금 말씀대로 外債를 더 안 쓰고는 안 되는 不可分の 原則이 있다고 할 때에 問題가 加算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本委員이 이 問題를 심히 생각하는 것은, 가장 重要的 問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다 기인을 했느냐면 서울市民 한 사람당 빛이 27萬원이나, 26萬원이나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 서울特別市 發展에 發展을 거듭하는 것도 좋지만 債務가 많이 負擔됨으로써 市民들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次元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地下鐵 第2期 建設이라든가 또는 서울市에서 지금 計劃하고 있는 地下高速道路, 더 나아가서는 公害問題 또한 맑은 물 먹기運動 等等 큼직 큼직한 財源을

必要로 하는, 말과 計劃 가지고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漸次的으로 많이 發生하고 요하고 있는 이 마당에 外債를 얼마만큼 앞으로 더 가지고 와야만 92年度는 우리가 計劃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대중의 計劃은 서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追加로 計劃하고 있는 것이 地下鐵의 車輛을 購入하는 車輛費가 있고, 그 OECF資金이.....

○李敏國 委員; 日本 돈으로 720億엔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게 하고, OECF.....總計가 3,350億원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일단 660億원이 됩니다.

○李敏國 委員; 年次的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年次的으로. 이것은 電動車를 購買하는 그러한 條件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BRD件이 下水處理場이 지난번 國會 財務經濟委員會承認이 났습니다만 560億원 정도가 追加로 下水處理場 建設費에 投入되게 됩니다.

○李敏國 委員; 그러면 地下高速道路를 생각할 때에 또 外債가 必要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地下道路 建設에 있어서는 저희가 外債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資金이 不足하면 國內起債로 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敏國 委員; 서울시 企劃管理室에서 물론 지금까지 모든 것을 市民의 立場에서 잘 處理하고, 計劃하고 執行하는 서울시가 원만히 했다고도 答辯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간에

많은 汚點을 남긴 것을 否認 못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 市는 더욱 覺醒해서 보다 發展的인 서울 市를 위해서 부단한 努力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서울 市에서 運營하는 市立大學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敏國 委員; 豫算이 90億원씩 들어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敏國 委員; 管理室長님에게 제가 單刀直入的으로 묻습니다. 서울 市 職員 中에서 市立大學 出身이 몇 분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市立大學 出身으로서 몇 사람 있는지 統計는 지금 당장.....

○李敏國 委員; 잘 모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市立大學을 卒業한 사람들 가운데 2·30名 정도는 7級職員으로 採用을 했습니다.

○李敏國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7級이었던 6級이었던 들어 오셔서 勤務하시다가 다른 部署로 가는 것은 制裁方法이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制裁方法은 없습니다.

○李敏國 委員;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어저께 各 常任 委員會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財經委에서도 어저께 말이 많았습니다만 用役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방대한 서울 市를 擔當하자면 現 公務員의 頭腦를 가지고는 不可抗力이라는 次元에서 用役을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敏國 委員; 바로 그것은 他人의 頭腦를 빌리는 것 아닙니

까? 그래서 거기에 財源을 投資해서 他人의 좋은 아이টে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目的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政策에 反映하고, 施策에 反映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습니다.

○李敏國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市立大學을 運營하면서 人材 發掘을 왜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본委員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外國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美國에는 州立大學이 있습니다. 日本에는 東京市立大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일찌기 人材를 發掘해서 거기서 自己가 專攻하는 科目을 마스터해서, 그래서 市の 公務員으로 採用을 합니다. 그것은 벌써 入學시킬 때부터 가장 優秀한 學生만을 選定합니다. 그래서 그 學生들이 專攻科目을 專攻하게 해서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는 者만을 市 公務員으로 採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公務員은 他 部署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法으로 정했습니다. 또 他 部署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本人이. 禮遇가 좋습니다. 그래서 24살에 採用이 되었다 그러면 20年, 30年 自己가 專攻한 分野만 가지고 싸웁니다. 專門性을 養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用役이라고 하는, 지금 이 用役을 주었을 때 用役에서 아이টে을 받아서 市長이 이것을 施策으로 反映했을 때 해 보니까 잘못되겠다 해서 걷어들이는, 그랬을 때에 反對的인, 反射的인 用役會社에 대한 責任追窮이 法律上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없습니다.

○李敏國 委員; 없지요. 그러니까 用役을 맡은 사람들은 막말로 수박 겉 핥기식. 어저께 崔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現場마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에서 自己가 조금 뭘 안다고

그저 덮어놓고 立案을 해 올리면 市에서는 그것을 가장 좋은 아이템인줄 알고 採擇하는 것이 現實의 서울特別市 行政이라고 저는 斷定합니다.

그래서 서울市를 쳐다보고 市民의 立場에서 가장 奉仕하시는 室長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優秀한 大學을 나오시고, 大韓民國 首都 서울의 企劃管理室長님 하면 거의 다 아십니다. 有能하시고..... 이러한 立場에 계시는 분이 왜 이러한 것을 미리 좀 中央이나 또는 市長님에게 提議해서 代案을 못 내셨나 하는 點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外國에서는 大統領이 또는 首班이 認定하는 경우만을 用役을 줍니다. 거의 90%는 自體內 用役으로 끝냅니다. 自體內 用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年, 30年을 그것만 가지고 研究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짜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면 거기에는 罰則이, 엄청난 罰則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강 건너 불 난 것 보듯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施策發掘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外國의 예지만 좋은 點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點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姿勢도 必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 市立大學을 90億원이라고 하는 財源을 投資하면서 우리 市에서 運營하는 이 大學이 좀더 人材養成을 해서 2000年代, 3000年代를 향해서 市 公務員이 과연 能率있고 責任있는 市 行政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도록 할 수 있는 養成의 方法을 研究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엇그제 市長님께서 本會議場에서 施政發表를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江南에 48%, 江北에 52%를 投資하겠다는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에는 江北과 江南이라고 하는 서울特別市の 固有名詞가 붙은 것은 漢江을 中

心으로 해서 南쪽은 江南이요, 北쪽은 江北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江北에 89年度부터 90年, 91年度까지 3個年에 걸쳐서 과연 江南과 江北에 대한 豫算投資 比較表가 지금 있으신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하면 내일 그 比較表를 本委員에게 주실 用意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드리겠습니다.

○李敏國 委員; 제가 알기에는 京畿道 高陽郡一圓을 서울特別市 新市街地로 만들려고 진작에 했던 것입니다. 왜 江南으로 서울市 新市街地가 策定이 되었느냐 하는 根本原因은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江南으로 서울特別市를 넓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南北戰爭이라고 하는 次元에서, 戰爭이 일어났다 할때 과연 어떻게 서울市를 지키고 守護할 것이냐 하는 計劃을 樹立하다 보니 江南이라고 하는 都市發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든다고 하면 果川에 廳舍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江北에 4大門에서만 사는 市民들이 불편스럽고 生活與件이 되지 않아서 江南에 移住하지 않으니까 江南에 移住하는 次元에서 많은 惠澤을 주었고 各種 許可條件도 江南에는 주고 江北에는 안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衡平에 어긋나는, 均衡이 안 잡히는 서울特別市가 形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地方化 時代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江北을 이대로 放置할 것이냐 이러한 次元에서 本委員은 江北의 時代를 맞이해야 되겠다, 서울市에 勤務하시는, 나라 祿을 잡수시는 公職者의 마음자세도 江北의 時代를 이제는 열어야 되겠다 하는 次元에서, 企劃室長님 이제는 市長님이 엇그제 發表한 48 對 52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삼칠제로 해서 70%

江北에 投資하고, 30% 江南에 投資할 用意는 없으신지, 또는 있으시다면 이러한 機會에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質疑 끝나셨습니까, 李委員님 끝나셨어요?

○李敏國 委員; 네, 答辯 좀.....

○委員長 朴尙東; 가능한한 質疑를 하실 때 要約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고 室長님의 答辯을 들은 以後에 午前 監査를 停會하고, 午後 2時에 監査를 다시 繼續하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을 要約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立大學 問題에 관해서는 참 좋은 指摘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172名을 採用을 했습니다, 7級으로. 採用을 해서 지금 繼續 勤務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教育部와 좀 協議를 해서 서울시가 소위 財團理事長格으로, 財團格으로 되어 있는 市立大學에 대한 問題를, 좀더 서울시가 投資한 만큼의 人力을 키워서 우리가 活用할 수 있는 그런 制度的 裝置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江南·北 開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9年, '90年, '91년까지의 豫算比較表는 저희가 내일 중으로 提出을 해 드리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89, '90, '91년까지 3個年까지는 制度的으로 약간 政治性 있는 어떤 均衡開發을 외쳤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實質的으로 돈에 의한, 이런 額數의 比較 이러한 것은 事實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좀 現實化하자 그래서 制度的인 補完은 다 되었으니까 이제 投資面에서 이것을 現實化하자 해서 그나마 이번에 우리 市議會 議員님 여러분들의 協助가 있

으시다고 하면 지금 提出된 58 對 42의 이러한 水準으로 1 次年度를 끌고 나가볼 생각이고 앞으로 점점 隔差를 좀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 對 70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最大限 江北에 사시는 분들이 江北은 서울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最大限의 力點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할테니까 委員 여러분들께서 積極的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제가 그 部分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는 委員있음)

○委員長 朴尙東; 그래요. 간략하게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지난 번 本會議場에서 常任委때도 本委員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室長께서도 방금 江南·北만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各 地域別로, 區別로 隔差가 심한 것, 그것에 留意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答辯은 江南·北이라는 것은 漢江을 基準으로 해서 漢江 以北이나, 漢江 以南이나 쪽이지, 江南에서도 江南區, 瑞草區 이쪽하고 冠岳區, 九老區 이쪽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것을 몽똥그려 漢江 以南에는 全部 잘 살고 모든 都市 基盤施設이나 與件이 좋고 江北은 全部 그렇지 않다 그런 論理가, 그런 根據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래서 지금 제가 表現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要點만 말씀하시라고 해서 江南·北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崔明鎭 委員; 지난 번 答辯에서도 室長께서는 그 答辯이 잘 못되어서 나중에 訂正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答辯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前提로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江

南 江北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래서 江南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東部와 西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江東, 松坡, 江南, 瑞草 이 地域은 거의 開發이 다 끝난 地域이나 마찬가지로이고, 같은 江南에 있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銅雀, 冠岳, 九老 이 部分에 대해서는 아직도 開發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江南도 東部와 西部로 나누어 우리가 比重을 달리했고, 江北도 現在 中央部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히 더 開發할 素地가 없습니다.

다만, 東쪽과 西쪽 양쪽에 다소 比重을 달리하는, 中央과 양 옆을 比重을 달리하는 그러한 江北의 두 쪽, 그 다음 江南의 두 쪽 이렇게 全部 區分을 해서 措置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投資費 말씀을 드리자면 江南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瑞草까지는 불과 8%이고, 그 다음 西部地域, 지금 말씀드린 冠岳, 銅雀, 九老 이 地域은 33%가 配定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比重의 差異를 두고 저희가 開發計劃을 짜는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네, 感謝합니다. 앞으로 서울市에서 報告를 하든지 그 資料 내실 때 江南·北으로 區別해서 單純論理로써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江南에서도 東部, 西部, 江北에서도 그렇게 區分해서 모든 計劃이나 施策이나 市 豫算配定이라든지 그렇게 區別되어져야지 單純論理로 해서 하지 마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室長님께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施政演說, 市長이 施政演說을 한 20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豫算案은 江南·北間의 地域別 開發需要의

정도를 勘案하고, 4大圈域으로 區分하여 相對的 落後地域인 江南의 西部圈과 江北의 東部圈에 重點投資, 江南·北間의 地域單位 投資事業 豫算을 각각 42%, 58%로 調整 配分하였습니다」 하고 여기에 明示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만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企劃室長께서 李敏國 委員의 質問이나 崔明鎭 委員의 追加質問에 대한 것은 바로 이 施政演說의 內容대로만 執行을 해주시면 異意가 없을 것입니다. 過年度의 實質的인 施政演說 內容은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江南·北 均衡發展만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完全히 4大圈을 묶어서 이렇게 細分해서 상세하게, 豫算을 編成할 때 이러한 方向으로 하겠다는 具體的인 施政演說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勘案해서 꼭 이대로 執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여러분 感謝합니다. 이게 午前 監査는 이것으로 마치고 午後 2時에 監査를 다시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1分 監査中止)

(14時 03分 監査繼續)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質疑하실 委員 여러분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 해 주시지요.

○蘇中天 委員; 蘇中天입니다. 統計管理에 대해서 우선 質問

하겠습니다. 統計調査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여기 資料에 보면 用役業體도 統計資料에 들어가는데 用役業體가 統計資料를 내면 어느 정도 反映을 합니까, 用役業體에서 나오는 統計資料를?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가 統計를 가지고 있는 部分은 政府에 의해서 實施되고 있는 人口센서스와 各種 産業關係 調査 代行이 있고 그 다음에 市 自體로서 統計를 作成하는 것이 있습니다. 市 自體 統計를 作成하는 것은 各 機能別로 나뉘도록 所管業務에 대해서 必要한 數値를 作成해 내는데 그 過程에서 극히 制限된 部分이지만 全體적으로 統計를 目的으로 해서 用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用役에서 나온 結果值 중에서 市가 일일이 確認할 수 없었던 그런 分野에 一部反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與件에 맞추어 저희가 引用할 때에 引用한 숫자가 統計值로써 代表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分野가 어떤 分野입니까? 그러니까 서울市에서 統計를 내는데 제일 어렵다 그런 分野가 어느 分野예요, 正確한 數値를 낼 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다루던 것 중에서는 社會福祉指標, 社會福祉指標가 事實上 가장 어려운 分野가 아닌 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제가 보는 것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市民의 社會福祉指標를 作成하는게 제일 어려울 것이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調査用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用役에서 調査한 內容을 얼마만큼 反映을 하고 서울市 自體的으로 調査한 것이 어디, 그러니까 用役業體 말고 다른 곳, 監査院이라든가 各 中央部處에서 調査한 것을 몇 %를 주고 用

役業體에서 한 調査內容을 몇 % 反映을 해 주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社會福祉指標는 서울시 單獨으로 하는 것은 다소 問題가 있다고 보고 일단 經濟企劃院의 韓國社會指標에 관한 統計가 원천적으로 하나의 代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根據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 圈域에 대해서 部分的인 調査를 하게 되는데 經濟企劃院의 韓國社會指標의 경우도 75年에서 78年까지 3年間의 調査過程을 거쳐 그로부터 1年後인 79年에 最初로 發表를 했습니다. 그것이 最初로 發表된 것이라고 보는데 市가 調査를 한 것은 國內 地方自治團體로써는 그나마 첫 試圖다 저희는 이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過去와 比較하는 것도 물론 어렵고 또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比較도 不可能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用役에 의해서 나타난 數值가 서울시로 하여금 몇 %를 認定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自體로써도 判斷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狀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調査를 한 후에 그것을 샘플로 몇 가지 分野에 대해서 自體的으로 逆調査를 해서 그것의 正確度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判斷한 후에 그 때 비로소 可能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 點인데 아주 重要的 問題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과연 住民統計調査資料가.....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用役에서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中央部處에서 내려온 調査資料하고, 더 重要的 것은 우리 서울시 自體的으로 調査를 해야 하는데 人力難이라든가 技術面에서 여러 가지 不足한 面이 있을 것 같지

만 각 基礎團體, 區廳이나 洞事務所나 이러한 곳에서 現地 勤務하는 従事者들이 보고 느끼고 調査한 것을 토대로 11월이라든가 10月 以後에 즉 統計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用役 業體에 맡긴 調査한 內容하고, 그 다음에 中央部處하고 했을 때 差異點 같은 것이 분명히 나겠지만 正確度는 우리 自體的으로 調査한 것이 제일 맞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資料에 보면 전혀 그러한 내막은 없고 단, 社會福祉指標調査用役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用役에서 結論的으로 偽造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正確한 統計資料를 빼고 調査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韓國銀行 調査部에 住民統計資料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韓國銀行에 調査部가 있지요.

○蘇中天 委員;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報告를 낼 때 어느 정도 引用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綜合的으로 다 引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다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이 안 되면 基礎가 없으니까 안 되지요.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低所得層, 이제 다른 分野도 물론 問題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低所得層에 대한 91年度 豫算, 90年度 豫算에 反映한 것을 보면 實質的인 調査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실지 저쪽의 福祉 事業에 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支援을 해 주어야 하고, 또 1種, 2種, 3種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그런데 現地 調査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217億원에서 올해 2,800얼마이지요, 이것은 調査가 안된 것이예요. 結果的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75億원씩 들여서 用役業體에 한 번 調査해 보라해서 그것을 根據로 하니깐 전혀 現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調査 나온 것, 지금 數値가 나온 것은 거의 제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低所得市民層에 대한 生活管理 側面에서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蘇中天 委員; 그렇지요. 제가 專門으로 알고 있는 分野는 그 쪽인데 거기에 未達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調査가 不足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社會福祉指標에 나온 狀況하고는..... 그것은 그 속에 그것만 專門的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蘇中天 委員; 아니지요, 全般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社會福祉指標는 市民生活에 있어서 經濟的인, 어떤 測量的인 水準을 다루긴 다루었으되 그 외에 住宅, 環境, 交通, 犯罪 等 여러 가지가 複合的으로 包含이 되어 있어서 그것 하나만 딱 들어내기는 조금 問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蘇委員님 말씀하시는 低所得市民에 대한 그 縮小된 範圍에서의 指標, 그것은 저희 行政機關에 의해서 별도로 調査가 되어야 하고, 그 별도로 調査된 것을 根據로 해서 政府가 정하고 있는 法定 支援基準에 따라 支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狀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蘇中天 委員;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調査를 해본 것으로는

韓國銀行에 있는 調查資料 統計가 제일 權威가 있다 라고 제 나름대로 들었고 그 다음에 監査院資料,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市에서 實質的으로 調查한 內容과 합쳐졌을 때 正確한 統計資料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다른 분 質問을....., 바르게살기協議會가 있지요, 市 協議會. 그런데 이것이 額數는 얼마....., 또 이상하게 額數가지고 따지면 이상한데 5,000萬원이라는 돈을 7月까지 支拂한 根據는 어디에 의해서 支拂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바르게살기協議會......

○蘇中天 委員; 바르게살기運動事業會 서울市支部.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서울市支部에 돈을 준 根據......

○蘇中天 委員; 네, 어느 法 根據에 의해서 돈을 支拂했느냐 그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各種社會團體에 대해서 補助金 形式으로 支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補助金 形式으로 해서. 補助金을 주는 것은 個別的으로 法에 補助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根據를 가진 團體가 있고 또 하나는 地方自治團體가 必要에 의해서, 어떤 必要에 의해서 그 活動을 助長해 줄 필요가 있다고 判斷되는 團體에 대해서 補助를 할 수 있는 그런 方法이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네, 있어요. 그런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協議會라든가 이러한 것은 豫算編成을 하는 過程에서 中央의 指針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大部分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指針을 받아서......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地方自治制가

實施되기 以前의 얘기이고 이게 實施가 되었으면 우리 스스로 自治權을 確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地方財政法에 보면 第14條第1項第4號에 「自治團體가 管掌하는 事業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協議會가 뭐가 自治團體를 이끌어 가는데 必要한 事業이 있어요, 室長님께서 한 번 하나만 짚어보세요. 꼭 必要하다, 우리 서울市 自治團體가 事業을 하는데 바르게살기協議會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民運動을 展開하는 過程中에서 예를 들면 새秩序·새生活運動을 本格的으로 展開한다든지 하는 것이 委員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千萬市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일에 熱誠을 가지고, 意欲을 가지고 參與하고자 하는 분들을 中心으로 그분들을 뒷바라지 해 드림으로 해서 그러한 運動도 擴散이 되고, 國家에 또는 地方自治團體이면 自治團體, 그 좁은 社會이면 좁은 社會에 대해서 어떤 雰圍氣를 바로잡아 나가는 先導的인 役割을 맡기고 부탁하는 그러한 機能을 擔當해 주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蘇中天 委員; 그분들은 自發的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奉仕한다고. 바르게살기 한다고 해서 自發的으로 나왔는데, 지난 번에 제가 여기서 企劃管理室長께 質問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네에 가면 有形無形의 團體가 수도 없이..... 企劃室長님 지금도 모르지요, 동네에 어느 團體가 얼마나 있는지? 무지하게 많아요. 많은데, 必要치 않은 새마을이라든가 많은 團體를..... 바르게살기를 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 市民意識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분들 個個人

을 놓고 본다면 동네 가서 把握을 해 보더라도 과연 동네에서 이 團體가 必要하겠느냐, 必要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一線 洞長이나 區廳長께서도 그러한 團體를 把握自體도 못하는 團體가 많은데 앞으로 바르게 살기 여기에는 돈을, 豫算을 支援해 주면 絶對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委員님들하고 더 좋은 收斂過程을 거쳐서 判斷할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執行部署에 있는 企劃管理室長의 立場은 最小限 새마을協議會라든지 바르게살기協議會, 婦女會 이 셋 정도는 그래도 이 社會에서 여러 가지..... 자진해서라도 參與를 하면서 뭔가 市에 맞는 그러한 助力을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補助金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問題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자진해서 나오는 그러한 立場을 勸案해서 最小限의 活動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 하는 그러한 선에서 불가한 것인데, 그 以外에 特別히 저희가 더 支援하는 것은 없고 하니까 다만, 最小限의 費用負擔 自體도 事實必要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는 앞으로 조금 더 檢討를 해 보아야 할 問題라고 저는 이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中央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 준다 라는 그런 方式, 또한 항간에 제나름대로 느끼는 것도 疑惑이 가는 團體다 그러한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室長께서 正確히 把握해서 거기에 나갈 것은 다른 곳에 支援해 줄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檢討해 보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제가 質問을…….

(「제가 補充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崔明鎭 委員께서…….

○委員長 朴尙東; 아니, 蘇委員 質疑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같은 內容의 質問입니까?

○崔明鎭 委員; 바르게살기運動 問題에 대해서…….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시지요.

○崔明鎭 委員; 방금 室長께서 答辯하실 때 市民運動을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答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市內에 自律的으로 造成된 團體나 協會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團體들은 전부 다 市民運動을 하고 있습니다. 自己 私費를 털어가면서 無報酬로 犧牲하면서, 그 團體가 오죽 많은데 유독 바르게살기運動이라든지, 새마을連動이라든지 自由總聯盟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官邊團體, 自己 스스로 組織된 團體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官邊團體들한테는 서울市民의 血稅를 支援을 해 주고 진짜로 支援이 必要한 예를 들면 低所得層이 많이 사는 地域에서 自己私費를 털어가면서 젊은 靑年들이 苦生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幼兒園을 運營한다든지, 놀이방을 運營한다든지 私費를 털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市에다 이런 低所得層 市民들을 위해서 놀이방 運營이라든지 幼兒園·託兒園 運營을 하면서 補助를 해 주라고 해도 거기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自律的으로 나서서 하지도 않는 官邊團體에는 市民의 血稅를 그러한 곳에다 浪費를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엔가 國會에서도 問題가 되었던 事項인데 內務部長官도 앞으로 中斷하겠다고 분명히 約束을 했었습니다, 작년 경우에. 그랬는데 지금 答辯하신 內容

中에는 上部의 指示에 의해서 豫算編成에 넣어서 支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指示에 의한 公文 있습니까? 公文 한 번 봅시다, 지금. 內務部에서 바르게살기運動에 支援 해 줘라 이렇게 指示한 內容 있으면 지금 公文을 確認합시다, 이 자리에서.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聯關된 內容입니까?

(「聯關된 內容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조금만 계십시오, 全委員님. 公文을 찾아서..... 時間이 걸리면 全委員의 質疑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崔委員님, 아까 答辯드린 것 좀 訂正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項에 제가 있는 것으로 錯覺을 하고 報告를 드렸었는데 내년도 豫算編成指針에 다른 團體는 다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빠져 있네요, 없네요.

○崔明鎭 委員; 내년도 豫算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0年, '91年 특히 금년 豫算에도 支援을 해서 이미 執行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년 豫算을 지금 舉論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指示도, 內務部에서 指示가 내려왔기 때문에 豫算編成을 해서 支援해 주었다고 答辯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監査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래서 訂正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文書를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確信을 하고 있었는데.....

○崔明鎭 委員; 訂正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사과도, 이 委員會에서 公式적으로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까 분명히 그 分野에 대해서는 제

가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分野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만, 豫算編成을 왜 바르게살기에다 금년, 작년에도 주었느냐 하는 그 問題는 豫算編成에 관한 權限은 市長이 가지고 있었고 다만 그것을 審議 해주는 過程에서 審議는 國務總理承認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節次에 따라서 補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市議會에서 그것을 決定하시는 것이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崔明鎭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全潤杻 委員; 全潤杻 委員입니다.

財務經濟委員會에 資料要求된 것 한 번 봐주세요, 4-4페이지. 지금 聯關된 얘기인데 4-4페이지 두째항 社會團體 補助金 支援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31個 團體에 支援額이 43億 8,000萬원입니다,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全潤杻 委員; 그 다음 '92年度 要求額이 30個 社會團體에 54億 1,700萬원입니다. 금년도의 31個 團體와 명년도의 30個 團體에 대해서 團體名하고 支援額이 무엇인지 지금 答辯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答辯 못하면 조금 있다 하도록 하고 거기 基本方向에 한 번 보세요. 「負擔 根據없는 團體補助 全面 中斷 및 任意團體에 대한 新規支援 일체 不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맞게 해 놓았습니까, 編成 自體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新規支援은 없지요.

○全潤杻 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全潤杻 委員; 名單이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여기名單이 있습니다.
- 全潤杓 委員; 이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지금 崔明鎭 委員하고 蘇中天 委員이 묻은 內容하고의 問題가 어떻게 聯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新規團體는 없습니다.
- 全潤杓 委員; 新規團體는 없고 지금 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같은 것 들어가 있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들어가 있습니다.
- 全潤杓 委員; 그것은 法的 根據없이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根據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 根據는 있습니다. 根據는 다 있는데, 그 根據가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質疑하신 그러한 內容은 根據보다는 소위 效果面에 있어서 다 같이 社會運動이면 社會運動을 하는데 꼭 그런 團體에만 그렇게 줄 理由가 있느냐 하는 그런 側面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보니까 그것은 별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全潤杓 委員; 그럼 제가 얘기한 團體名하고 要求額數하고 금년도, 내년도 것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朴尙東; 네, 고맙습니다. 書面으로 企劃管理室長께서는 30個 團體의 豫算額에 대한 것을 各 團體別로 明細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 委員長 朴尙東; 또 다른 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聲九 委員.
- 李聲九 委員; 李聲九입니다. 어제 本委員이 質疑한 쓰레기

燒却場에 대한 企劃室의 答신을 보고 궁금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마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市 行政이 쓰레기 잘 치워주고, 수돗물을 맑은 물을 주면 절반 일을 했다고 할만큼 重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金浦쪽에 埋立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말해서 그 쪽에 넓은 땅을 잡아 놓았는데, 신고 가서 물어버리면 되고 또 우리가 半島니까 그 쪽에, 땅에 묻으면 國土도 좀 넓어질 것 같고 이러한 利得도 있는데 굳이 서울市內에서 갑자기 태운다는 것이 솔직하게 뭐가 없나 싶어서 한 번 企劃을 자꾸, 또 精密檢討를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또 工場이 한꺼번에 11個 工場을, 工場이 상당히 큽니다. 本委員이 木洞에서 燒却場을 보니까 거기서 하루 150톤을 태우는데 270名의 從事員이 일을 합니다. 아마 11個 工場을 다 세우면 1萬 2,500톤을 태우게 되면 아마 燒却場에 從事해야 되는 人員이 어림잡아 5,000名은 넘어 보입니다. 5,000名의 人員을 서울市에서 먹여살려야 하는 問題가 나오고, 그것은 또 물론 燒却을 해서 얻는 地域煖房費하고 發電比率로 상쇄를 한다 하는데 여기 지금 對比表에 보면 埋立을 할 때는 1萬 6,650원, 그 다음 燒却을 할 때는 1萬 6,400원이고 거의 같은 費用 明細를 내 놓으니까 結果적으로 볼 때 燒却을 하나, 埋立을 하나 費用은 같다, 어림잡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지금 11個 工場을 짓자면 2兆원 以上の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市가 빚을 안고 있는데 우선 生돈을 2兆원 以上 넣고, 같은 費用을 우선 목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費用이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淸掃事業本部를 設置도 하고 이렇게 하자면 組織이 방대해져야 됩니다. 지금

檢討段階에서는 이렇지만 官行政이라는 것이 사실상 執行해 보면 뭔가 經營의 멋을 냅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서울시 쓰레기 行政에서 蘭芝島에 있는 쓰레기를 보더라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선례가 흔지 않기 때문에 計劃性만큼 結果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쓰레기 處理問題에 대해서 벽돌이 한번, 아마 서울시에서 建資材로 쓰기 위해서 연탄재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工場도 失敗한 선례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선례를 볼 때 갑자기 燒却場을 이렇게 방대하게 만든다는 것이 뭔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나 저것이 稼動되다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일만, 工場만 이렇게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있고, 또 實得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물론 다른 外國의 선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깝게 仁川埋立地가 確保되어 있으니까 可能하면 뒷일이 없는, 우선 생돈이 또 안들어가는 埋立場을 利用하는 것이 優先順位이고 또 先進國에서 利用이 되고 있고, 廢棄物을 利用하는 것을 利用한다고 하면 좀더 確實한 檢討를 企劃室이 主管이 되고 該當部署가, 清掃擔當部署가 있으니까 한 번 더 相議해서 혹시나 갑자기 나온..... 根據도 더 參酌을 하시고 하여튼 再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炯奎 委員님 해 주시지요.

○金炯奎 委員;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公務員이 어제부터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자리를 뜨지도 않고 진지한 모습으로 受監하는 것을 봐서 정말 敬意를 포함

니다. 그러나 우리가 市政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서로의 忍耐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市民에게 우리가 市廳에서 일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은 알리지를 앎는 것이 一般的인 習性입니다.

그래서 제가 最近에 議員이 되어서 집에 배달되는 市民新聞 또 서울市廳에서 發行하는 모든 弘報物 이러한 것을 綜合해서 보았을 때 그 弘報物이 우리 市民에게 市政을 잘 한다고 하는 內容의 弘報物이 아니라, 우리 市廳 일변도적인 立場에서 讚揚 鼓舞 또는 誘導하는 그런 心理性的 弘報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市政 豫算審議나 또 우리 市政活動을 하시는 執行廳에서나 이러한 것을 서로 警戒해 가면서 審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6月 20日에 選舉에 임했습니다. 이 選舉에 임해서 우리 서울市廳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 불과 한달 사이에 이 弘報物種類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91年 우리의 서울」, 各 區廳에서 「冠岳」, 「서울의 새모습」, 「서울市政 '91」, 이것이 이보다 더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內容을 보면 알갱이가 없어요. 全部 寫眞 畫報입니다. 종이질도 이렇게 비싸고 高級紙입니다. 이것을 廣域選舉나 地方議會選舉에 때 맞추어 갑자기 서울市政을 弘報活動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년도에 있을 모든 選舉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서울市政의 弘報를 과연 해서 候補者에게 影響을 미치는 이러한 弘報計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서울市の 弘報 對策問題가 이와 같이 展示爲主고 偏狹된 立場의 弘報를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見地

에서 이 弘報物에 대한 姿勢를 앞으로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자세한 對策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選舉時期에 꼭 이와 같은 偏狹的인 弘報物을 發刊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세한 答辯을 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金炯奎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 중에 먼저 市民新聞이나 弘報 刊行物의 內容에 있어서 별로 參考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指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던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市民新聞에 실리는 것은 저희가 週報로, 旬報로 發行하고 있는데 一般的으로 記事化된, 一般 言論에서 記事化된 部分 中에서, 저희가 반드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혹시 한둘 그렇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追加로 說明을 해야 될 必要가 있을 때에 저희는 다른 手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市民新聞을 活用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두번째로 지금 보여주신 그 畫報는 서울市廳이 發刊하든지 또는 各 區廳이나 獨立된 事業所에서 自己機關을 PR하기 위해서 發刊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마침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금년 市議員 選舉時期에 맞춰서 나갔는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연치 않게 그러한 時期에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答辯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問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發刊物에 대한 豫算을 各 部署別로 各기 編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企劃管理室은 企劃管理室대로 豫算이 있고 또 公報室은 公報室대로 豫算이 있고, 內務局은 內務局대로 있고 이렇게 各 機能別로 전부다 刊行物에 대한 豫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刊行物이 그 局長

責任下에서 發刊이 되곤 했기 때문에 금년 下半期부터는 우선 統攝된 어떤 原則에 의해서 刊行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刊行物審議委員會를 만들어서 일단 모든 刊行物은 원천적으로 企劃管理室長을 班長으로 하는 그 刊行物審議委員會에서 內容이라든지 또 發刊의 必要性 與否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檢討하고 거기서 通過가 된 다음에 그 委員會의 議決書를 添附해야만 앞으로 刊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制度的 裝置를 해 놓았고, 그것이 좀 不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各 部署에 刊行物 豫算을 한푼도 넣어주지 않았습시다.

앞으로 豫算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全部 刊行物 豫算을 統轄 管理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넣어 놓았습시다. 한 군데 딱 넣어놓고 앞으로 다른 各 分野가 自己 必要에 의해서 어떤 弘報物을 만들고 싶더라도 豫算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審議機構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過程을 밟도록 했기 때문에 豫算도 금년 各 分野에서 가지고 있는 發刊物 豫算을 總括을 한 것보다 80% 水準에서 計算을 했고 또 만일에 이번 금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刊行物審議委員會의 機能이 제대로 活用이 되어서 앞으로 運營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게 나가는 그러한 刊行物이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內容이라든가 時期調整 이러한 面에 있어서 浪費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進一步한 制度로 저희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刊行物 內容과 刊行物의 必要性和 刊行物의 적절한 時期를 審議委員會에서 議論해서 統括해서 刊行物을 發行하겠다 그러한 말씀인데 대단히 重要的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묻는 말에

對答에 疏忽한 點이 있다면 금년도 地方議會 選舉때에 맞춰서 이와 같은 刊行物이 나왔는데 내년도 選舉時期에 이러한 刊行物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 答辯이 重要하다 이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내년도 選舉하고 刊行物하고는 關係가 없지요?

(「委員長, 제가 質疑 좀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아직 質疑가 다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選舉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刊行物을 만들 必要로하는 것은 年初에 1992年度의 서울市政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게 되고, 우선 代表的으로 만드는 것이 그러한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分野別로 예를 들면, 아까 다른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 가운데 예를 들면 淸掃, 쓰레기 分野가 꼭 市民들에게 理解를 구하고 協助를 받아야 될 그런 中대한 部分이다, 또는 上水道가 어떻다 하는 그러한 分野에서 꼭 市民들에게 새로운 施策을 알릴 必要가 있다고 볼 때에 그 時期를 잘 잡아서 저희가 油印物을 또는 弘報物을 만들어서 配布할 必要가 있을 때는 發行을 하게 될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企劃管理室長의 意圖와 本委員이 質問한 意圖가 상당히 隔差가 있습니다. 問題는 서울市政을 弘報하는 時期가 選舉의 時期와 맞아 떨어졌을 때는 立候補者에게 影響을 미침으로 인해서 그 불뚱이 서울市長에게 떨어집니다. 또한 市의 執行力을 牽制하고 있는 우리 市議會 議員의 位相이 格下되는 그러한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市長과 執行廳과 議會가 서로 그 주의를 牽制하고

그 뒤에 상당한 우리 市政의 弘報活動이 必要하다고 하는 그런 立場에서 어떠한 問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豫見되는 내년 選舉時節에는 市政의 弘報物을 發刊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것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努力을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네, 고맙습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하세요. 崔明鎭 委員.

○崔明鎭 委員; 이런 類似한 弘報物이 每年 發刊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많이 發刊되고 있지요.

○崔明鎭 委員; 작년에는 몇 月頃에 發刊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崔明鎭 委員; 「우리의 서울」 이러한 畫報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4월에 나왔습니다.

○崔明鎭 委員; 4월에. 「우리의 서울市政」 이것은 몇 월에 發刊했습니까, 작년의 경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4월.

○崔明鎭 委員; 네, 4월입니까, 틀림없습니까? 「서울의 새모습」 은?

根據書類 가지고 와 보세요. 작년도에 執行했던 根據書類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企劃擔當官 金光市; 금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작년에는 8月인가, 9월에 나왔습니다, 本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이 畫報가 어느 會社의 商品 宣傳합니까? 서울市가 商品입니까? 이것이 서울

市 市政을 알리기 위해서 發刊합니까, 서울市 商品입니까? 방금 室長께서 말씀하시는 서울市民이 꼭 알아야 될 事項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해서 알리는 方法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먼저 崔委員님이 들고 보시던 그 畫報는 물론 國內의 市民들에게도 돌아가지만 주로 外國 손님들에게도 많이 配布가 되고 있는 그런 實情입니다. 그러니까 그 用途에 있어서 무슨 發刊目的과 이런 것에 비해서 市民들에게 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서울市에서 만들어내는 弘報物이 꼭 그렇게 形式에 얽매어서 必要的 숫자나 나열하는 그러한 것은 좀 어려운 部分이 있습니다.

그래서 代表的으로, 예를 들면 꼭 必要的 것만 실어서 내보내는 그런 짜라시 같은 그러한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의 여러가지 다채로운 모습을 실어서 갖다 집어넣는 代表的인 畫報도 있고 그러한 것이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앞으로 統合調整해서 어떻게 어느 部署를 制限하고 어떤 內容을 制限하는것이 돈을 좀 아끼고 經濟的으로, 對內外的으로 弘報하는데 必要하겠느냐 하는 것을.....

○崔明鎭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一括的으로 調整하고 統制하는 機能이 없어서 各 部署에서 發刊되었습니까, 이것 어느 部署에서 發刊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은 各 部署에서 다 發刊.....

○崔明鎭 委員; 아니, 「서울의 새모습」은 어느 室에서 發刊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이지요? 이것 어느 部署에서 發刊했습니까?

(「세 가지 다 企劃管理室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關係公務

員 있음)

○崔明鎭 委員; 企劃管理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 한 部署에서 同一한 內容을 이렇게 비싼 아트를 써서 商品 宣傳하듯이 大量으로 發刊해서....., 꼭 選舉만 있으면 이런 畫報들이 登場을 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每年 나오고 있어요.

○崔明鎭 委員; 選舉때만 되면 이것이 산더미처럼 뿌려지고 있습니다. 選舉가 없는 해는 이것이 發行이 되는지, 發刊이 되는지 一般市民들은 구경조차 못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資料를 가지고 있어요. 市民의 血稅를 이렇게 無節制하게 無原則하게 무슨 어느 企業의 商品 宣傳하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市에서 꼭 市民들에게 알려야 될 事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分野도 많이 있어요. 제가 調査를 全部 했습니다. 企劃管理室에서 企劃을, 市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企劃을 해야지 市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企劃은 發表한 지 한 달도 안 가고 1년도 안되어 바뀌어서 도대체 이 企劃이 한 번 發表되면 이것이 진짜 實行이 될 것인가, 또 떠들다가 市長이 바뀌고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인가? 심지어 市廳 公務員들까지 疑心을 해요, 一般市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金炯奎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도 금년에 이런 狀況이 있었는데 특히 내년같은 경우는 4大 選舉, 4大 選舉합니다. 嚴正 中立을 지키면서 市民들 血稅를 有效適切하게 使用해야 될 서울市, 특히 企劃擔當하는 企劃管理室에서 同一한 內容을 이렇게 비싼 종이를 써서 大量 發刊해서 市内 各處에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答辯해 보십시오.

○委員長 朴尙東; 崔明鎭 委員님하고 金炯奎 委員님 質疑하신

內容에 대한 答辯은, 두 委員의 質疑에 대한 것을 충분히 檢討하셔서 弘報紙 이러한 것을 定期 刊行物로 發行할때는 經濟性 問題도 따지고 그 다음에 庶民層과 違和感이 생기지 않도록 弘報紙의 發刊에 대해서 申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네, 李秉守 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秉守 委員; 우리 企劃管理室 業務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現業이 아닌 政策機能 部署이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대충 質疑는 다 나온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質問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市에서 내놓은 서울市 負債現況이라는 리스트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質問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市에서 財政借入을 할 경우에 원화借入을 하는 경우는 별개의 問題이고 外貨借入을 할 경우에, 가령 ADB든 IBRD든 外國하고의 導入契約을 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分割償還이다, 利子는 年間 몇 %로 한다 하는 이러한 條件을 정하는 것을 借款借入線인 서울市長이 事業主體이니까 서울市長하고 外國 提供者하고 契約에 의해서 決定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中央部處에서 直接 介入해서 條件을 提示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分野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理由는 지난 9월에 農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에서 내놓은 資料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財源이 없어 엔화하고 달러借入을 했는데 엔화借入이 니혼고우교우깡꼬, 日本興業銀行에서 借入을 하면서 5年 거치 10年分割인가 뭐 그랬어요.

그런데 金利가 年 9%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崔明鎭 委員이 市 弘報關係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다분히 政治的인 그러한 각도에서 보았지만 제 自身 企業의 規模는 작지만 弘報하는 次元에서 저런 것을 市에서 發刊하는 것은 意味가 있어요. 外國에서 借款을 導入한다든지 할 때 全部 外國 公館을 통해서도 가고 等等 상당히 弘報로써 플러스 作用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意味에서 發刊하는 그 自體를 저는 나쁘다고는 안 보는데, 우리 서울市의 國際公信用을 따지면 A클래스 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興業銀行에서 借入한 것이 年 9%라고 하면 이것은 金利 自體가 대단히 높은 것이예요. 지금 OECF 같은 것은 4.5%에서, ADB 9.4%까지, 5%, 6%, 7% 대개 平均 한 육점몇 % 정도 되는데, 率이. 우리 서울市 現在 公信用으로 借入金利率이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契約을 締結할 때 締結權者가 누구냐, 이제 地方化 時代를 맞아 中央政府 黨政이 介人하고, 뭐 常識的인 얘기로 政治資金을 그 속에 包含을 시키고 하는 時代는 이제 지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地方分權化 時代를 맞이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稅收는 限界에 있고 事業은 推進해야 되겠고 財源이 不足해서 外貨를 借入할 경우에 地方化 時代에 알맞는, 그야말로 좀 條件이 좋은 그런 식으로 借入線도 얼마든지 選擇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決定이.....

지금 제가 機能이 企劃管理室 所管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各 事業 部處別로 獨自的으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問題는 企劃管理室에서 한 번 釐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은 예를 들면 저희가 公共借款, 商業借款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公共借款인 경우는 借款資金에 따라 借款線이 決定이 미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OECF에서 우리가 地下鐵 5號線의 電動車を 借入하기로 되어 있는데 電動車を 들여오는 過程에서 OECF에서 이미 決定을 해 버렸어요, OECF로다. 예를 들어 公共借款이 그렇게 決定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商業借款은 借款導入 時點에서 그 與件에 따라 中央政府에 의해서 핸드링이 많이 되고 있는데 金利 幅은 전부다 조금씩은 다른데 약 7% 내지 9%線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通常例로 되어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데 國際金利 趨勢로 보면 특히 借主가 事業性 用途 어디에 이것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提供해 주는 사람도 公益性 어떤 名分이 있으면 條件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여지는 事業性 自體의 性格으로 봐서 國際金利 7%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비싼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싸게 쓰고 있어요, 보니까. 市에서 저금 保有하고 있는 外債에 대한 金利는 달러의 경우 리보金利로 해서 0.25%, 리보金利에 0.25% 內外 플러스된 그러한 金利를 쓰고 있는데, 國際 變動 金利로 보면 리보金利에 플러스해서 0.6% 內外가 되겠고, 엔화는 저희가 지금 4.5% 내지 5.2%線에서 金利負擔을 하고 있는데 國際金利로 7%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은 우리가 6%線에서 지금 外債金利를 負擔하고 있는데 國際金利는 8.4%, 그 다음에 파운드는 우리는 7.5%를 지금 負擔하고 있는데 國際金利는 1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아까 제가指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이 提供하는 日本 고우교우깁고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어떤 분이 民資로 東海 쪽에 高速道路를 推進하려고 日本에서 1,000億엔 借額을 5年 거쳐 15年 借款으로 했을 때 年 5%로 相談이 상당히 깊숙히 進行되었는데 그만 國內에서 電鐵이 許可나는 바람에 그 自體가 안 돼서 挫折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個人이 事業 主體가 되어 推進을 하려 하는데도 5%면 可能한데 서울市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어디 것인데요?

○李秉守 委員; 日本興業銀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日本이 4.5%에서 5% 정도 線이예요, 저희도.

○李秉守 委員; 전에 農水産物都賣市場이 9%로 들어온 것이, 물론 옛날 이야기이지만 지금 보니까 다 갚고 얼마 안 남았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때는 國際金利가 높을 때였습니다.

○李秉守 委員; 80年代初 우리 金利가 國投資金만 해도 9%로써.....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리고 外債가 많아서 소위 擔保能力이 있다 없다 判斷을 하면 對外信用度에 따라, 그 때만 해도 對外信用度가 약할 때이기 때문에 金利를 좀더 높여서 받아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對外信用度가 좋아져서 金利를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IBRD 같은 데에서는 돈 쓸 것 없느냐, 돈 좀 갖다 써라 하고 오히려 나오는 그러한 形便이니까 金利를 흥정을 할 수 있는 그런 餘力도 있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質疑 끝나셨습니까?

○李秉守 委員; 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간단 간단하게.

○金順愛 委員; 消防署에 대해서 한 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서울市 消防署, 有事時 불이 났을 때에 저희가 119로 申告하면 消防車가 오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順愛 委員; 그러면 消防車가 왔을 때에 불을 끄고 있는, 불을 끄려고 온, 예를 들어 消防車가 1臺가 왔든 10臺가 왔든 그 消防車에 드는 費用 그것을 現在 누가 負擔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住民들에게 이것이 弘報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2-9에 보시면 消防에 대해서 監査1擔當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에 對民서비스 行政해서 있습니다, 한 번 參考로 보시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2-9, 資料集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順愛 委員; 네, 資料集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네, 보고 있습니다만.....

○金順愛 委員; 네, 불이 났을 때 1臺든 10臺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왔을 때 消防車의 負擔率을 建築主가 負擔하느냐 아니면 消防署에서 負擔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도 아마 누가 負擔하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規定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答辯했다가 실수할까봐 規定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얼른 答辯드렸다가 자꾸 실수를 해서 時間을 조금 주시면 찾아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金順愛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그렇게 하시지요.

蘇中天 委員.

○金順愛 委員; 잠깐 또 한 가지, 미안합니다.

2-11番입니다. 거기에 보면 19番이 있습니다. 「江南市立病院, 保健所, 버스터미널, 地下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버스터미널, 地下鐵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江南市立病院에 대해서 靈安室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靈安室이 있지요.

○金順愛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靈安室을 어떻게 運營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그외에 서울시 綜合病院에 靈安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市立病院 외에도 예를 들어 서울大學病院, 세브란스病院 등 國立病院이 되었던 個人病院이 되었던 靈安室이 設置된 病院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반적인, 靈安室을 어떤 方法으로 運營하시는지 그것을 答辯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靈安室의 運營은 大部分의 경우 第3者에게 委託을 주어서 經營을 시키고 있습니다. 病院에서 直接 運營하는 것이 아니고 建物を 一定한 사람에게 靈安室을 運營하도록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江南市立病院의 경우는.....

○金順愛 委員; 本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直營이 아니고 某 他人이 運營하는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럴 可能性도 많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여기서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金順愛 委員; 네,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서울시에서 管理하고 存在할 수 있는 靈安室을 某 特定人이 그렇게 靈安室

을 運營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意圖, 어떤 方針에 의해서 個人에게 委託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靈安室의 運營은 一般的으로 그 病院 自體가 하기는 다소 問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靈安室의 特殊性 때문에 施設은 물론 病院이 해 주고, 그 使用料, 手數料는 다 받지만 그러나 靈安室을 運營한다는 것은 靈安室에 대한 諸般, 소위 問喪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問題를 아마 다 다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斡旋도 해 주어야 되고 仲介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한 役割까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問題가 있기 때문에 靈安室을 貸與를 해 주고 일정한 金額의 貸與料를 받고 그것은 地方公社의, 江南病院이면 江南病院에서 稅外收入으로 잡아서 그것은 별도로 措置를 하고 아마 그렇게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順愛 委員; 네, 그러면 아까 靈安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救急車에 대해서 저희가 危急한 患者가 發生될 경우 救急車를 요하지 않습니까? 救急車를 요했을 때에 이 車가 저희는 1臺가 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2臺, 3臺가 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한 번 電話를 하셨는데 2臺, 3臺가 와요?

○金順愛 委員; 네, 그러면 그 救急車도 결국은 病院에 專屬되고 附屬된 車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市立病院에 靈安室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서울시 市立病院에 靈安室이 있기 때

문에 他 病院에도 靈安室이 생긴 줄 압니다. 母體가 서울시市立病院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靈安室과 救急車의 運營에 대해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監督할 義務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監督을 實際…….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靈安室에 대해서…….

○金順愛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물론 靈安室은 監督을 받지요. 아무리 賃貸를 했다고 해도 監督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엠브런스, 救急車는 靈安室에서 運營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病院에서 運營을 합니다. 그것은…….

○金順愛 委員; 病院에서 運營을 하신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監督을 하실 義務가 있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監督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金順愛 委員; 그렇지요. 바로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病院 스스로가 責任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金順愛 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서울시가 바로 責任을 지셔야 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습니다.

○金順愛 委員; 그러면 現在 靈安室과 救急車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運營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靈安室하고 救急車하고는 關聯이 없습니다. 靈安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賃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賃貸를 준 경우든 안 준 경우든 靈安室은 일단 病院에서 모든 事項이 끝난 그

후에 일이 이루어지는데가 靈安室이고, 救急車는 어디까지나 生命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生命을 살리기 위해서 救急患者를 데려오는 그런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應急室用으로 必要한 車輛이지 그것은.....

○金順愛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고귀한 生命을 다루는 應急車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救急車를 病院에서 다 運營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靈安室 같이 他人에게 用役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病院車는 病院車가 그대로 있지요.

○金順愛 委員; 그러면 서울시內 救急車는全體 病院에 속하는 病院車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各 病院에서 運營하고 있는 自家救急車가 있고 그 다음에 消防署가 運營하는 119 救急隊가 있습니다. 119 救急隊. 119를 돌리면 119에서 반드시 火災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救急車도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金順愛 委員; 제 말씀은 消防署는 아까 答辯을 資料를 찾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消防署 答辯을 찾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제가 病院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病院 救急車에 한해서 用役을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病院 全體에서 救急車를全體 쓰고 계시는지 이것을 答辯해 주시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用役을 주는 것이 없는데요.

○金順愛 委員; 아, 없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다 病院車이지요.

○金順愛 委員; 서울시 現在 救急車全體가 다 病院車로 생각하시고 계신다 이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서울시 全體 救急車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것은 제가 參考로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을 理解를 못 하시는데 公共性格을 띤 病院이나 個人病院의 救急車는 用役을 줄 수도 없고 賃貸도 할 수 없습니다. 靈安室은 公共機關의 醫療機關이라도 賃貸를 할 수 있어요. 빌려 줄 수 있지만 救急車는 病院이 專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賃貸를 할 수도 없고 賃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金委員, 그것은 理解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金順愛 委員; 네, 제가 말씀...... 委員長님 말씀 좀 補充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엠브런스......

○金順愛 委員; 네, 지금 企劃室長님께서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順愛 委員; 救急車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다른 病院이, 私設病院이 自己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 延大病院, 서울大學病院이든 어느 病院에서 救急車를 賃貸를 해 쓰고 있는지 그것은 內容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市立病院에서 다른 用役團體에다 줘서 救急車를 運營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金順愛 委員; 아까 本委員이 묻기로는 서울시 綜合病院 全體의 救急車에 대해서 물으니까 全體 用役은 絶對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市立病院에 대해서만 用役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金委員님, 이것을 좀 가려서 제가 答辯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內 病院, 病院 하시니

까 저는 市立病院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金委員님 말씀은 서울市內에 있는 全體 公·私設間의 全體 病院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듣고 보니까. 서울市內에 있는 全體 다른 病院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서울市內에 있는 市立病院 다시 말씀드리면 江南病院, 兒童病院 그 다음에 東部市立病院 이런 정도 선에서 지금 저는 答辯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金委員님은 또 기타 다른 綜合病院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金順愛 委員; 네, 그렇게 綜合的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本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病院의 救急車는 全部는 아닙니다만 個中에 某個人에게 用役을 줘서 現在 시스템 自體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患者가 發生했을 때 119로 돌리면 車가 2臺 내지 3臺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順位는 먼저 온 사람이 既得權이 있어서 먼저 오신 분이 患者를 싣고 病院으로 갑니다. 즉 用役會社의 救急自動車 運營하는 그 社長께서는 그 患者를, 죽은 患者를 靈安室로 데리고 갔을 때는 그 기사에서 靈安室에서 엄청난 待遇를 해 주고, 또 患者가 危篤하지 않아 應急室로 데리고 갔을 때는 平凡하게 대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서울市內에서 公公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業體가.

그래서 이 患者가 죽었을 때에 靈安室과 葬儀社에 또 엄청난 不條理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救急車를 運營하는 會社에서는 患者가 發生했을 때에 실지로 살리는 데는 생각이 없고, 제사에는 잣밥이 있듯이 살리는 데는 생각이 없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患者가 죽

기를 바라면서 靈安室로 끌고 갈 誘導作戰을 합니다. 그러면 즉 靈安室과 葬儀社, 救急車, 用役會社에 대한 엠브런스차와 한 사람당 사람에게 따라서, 葬禮式에 따라서 費用은 다릅시다만 나누어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정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썬요, 그것은 제가 調査를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상당히 重要的問題 같은데.....

○金順愛 委員; 그리고 病院에서 患者가 목숨을 딱 숨을 거두었을 때 불과 1分도 안되어서 病院側에서 와서 靈安室에 넣습니다, 한 시간도 안 되어서요. 이것은 企劃室長님이나 누구든지 우리 全體 다 피부로 느끼고 언젠가 다 겪을 일입니다. 즉 家族이 와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다만 한 시간이라도 좀 있다가 靈安室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해도 하여튼 그 서비스만은 大韓民國에서 最高 1등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불과 1分도 안 되어서 靈安室로 바로 보냅니다. 물론 말은 좋습니다. 病室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患者를 入院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名分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마만큼 靈安室에 대해서 營利가 엄청나다는 것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救急車를 불렀을 때에 기사에게 팁을 10萬원을 주면 이 기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팁을 안 주었을 때에는 일부러 時間도 끕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이것은 참 우습고 아주 치사스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엄청난 悲劇이예요. 저희가 기사에게 팁을 안 주었을 때에는 기사가 일부러, 물론 交通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 順序대로 따라갑니다.

윙 윙 하면서도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10萬원 팁을 주었을 때에는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불러 왜 이렇게 하느냐? 救急車에서 雇傭하고 있는 기사는 한 달에 最下 收入이 200萬원, 300萬원 이랍니다. 그런 팁을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갈라먹고 그런답니 다. 그래서 아! 어떤 遺家族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리기 위 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이 기사하고 救急車 會社에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葬儀社하고 靈安室은. 참 이것은 너 무 너무 가슴 아프고 통탄할 저의 立場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靈安室에 대해서 물론 私立에서는 私立 이지만 우리 市立病院만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靈安室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을 때에 그 모든 必要한 裝備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 을 때 입고 가시는 옷, 壽衣 等等을 그냥 똑같은 물건을 가지 고도 이것은 몇 拾萬원, 이것은 몇 拾萬원 그러니까 그 遺族 側에서는 마지막 가시는 父母나 兄弟나 子息이기 때문에 비 싸고 싼 것 그러한 것을 意識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 도 잘해야 되겠다는 強迫感,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또 景況 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다 보 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靈安室에서 葬禮費가 몇 百萬원 올 라가는가 하면 家庭이 어려운 사람은 몇 拾萬원으로 다운이 되고, 사람 봐가면서 靈安室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市立病院만이라도 이것을 한번쯤 注意를 주시든지 한번 參考로 챙겨 보셨으면 하는 뜻 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委員長 朴尙東;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金順愛 委員; 네, 알겠습니다. 消防署에 대해서 말씀, 答辯해 주시지요.

○委員長 朴尙東; 잠깐 한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하고 어제와 오늘 많은 質疑를 해 주셨고 또 많은 答辯이 나왔습니다. 한 10分間 停會를 한 以後에 續開를 해서 오늘 監查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24分 監查中止)

(15時 36分 監查繼續)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蘇中天 委員님 마지막으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 金順愛 委員님 質疑에 答辯 안합니까?

○委員長 朴尙東; 아! 네, 答辯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까 金委員님이 質疑하신 것 중에서 消防 關係 質疑를 하셨는데 火災가 나서 消防車가 出動을 해서 鍍火를 할 때에 消防車가 몇 臺가 出動을 했든지간에 消防車 出動에 대한 費用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公式的으로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失火다 해서 어떤 司法機關에서 判斷이 나면 判斷結果에 따라서는 所定の 罰金을 賦課하는 그러한 制度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江南病院 靈安室은, 江南病院이 현재 靈安室은 75坪인데 賃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賃貸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個人에게 賃貸를 한 것이 아니고 報勳福祉公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報勳福祉公團이라는 것이 있는데, 報勳福祉公團에다 年間 4,775萬원에 賃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市立江南病院의 경우에는 賃貸契約時 契約條件에 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諸般事項을 하지 못하도록 條件을 賦與하고, 그 條件의 遵守與否를 徹底히 監督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質疑하신 대로 예를 들면 中間에 事實上으로 그 일을 仲裁하는 사람이 中間에,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自身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市立病院에 한해서는 最小限度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積極적으로 指導 監督을 하겠습니다.

○金順愛 委員; 네, 感謝합니다. 그러면 消防署 말씀을 하셨지요, 돈 안 받으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약 4年前만 해도 불이 났을 때에 建物主가 負擔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消防署를 訪問해서 여쭙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完全 無償이더군요. 단 한푼도 안 받습니다. 企劃室長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問題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企劃室長님이나 서울시 職員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모님께 宿題를 한 번 드려 보십시오. 불이 났을 때에 그 消防車의 費用을 누가 負擔하느냐,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政府가 負擔해야 되느냐, 消防署에서 負擔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모님들께 숙제를 한 번 주셔서 여쭙어 보십시오. 99%가 建物主가, 불난 집에서 負擔해야 된다고 그렇게 答辯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女性들, 女性團體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필히 묻습니다. 99%가 建物主가 負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이 조금 나면 집에서 얼른 그냥 끄면서 그것을 負擔하기 싫어서 얼른 申告를 안 하는 主婦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돈 몇拾

萬원을 아낀다 이러한 생각에서, 臺當 몇 拾萬원이라고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事實은 그것이 아니고 完全히 無償 아닙니까. 그런데 無償인데도 不拘하고 불이 났을 때 몇 拾萬원, 몇 萬원 내는 그러한 것 때문에 申告를 일른 못해서 불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崔委員님께서 아까 서울시 아까 弘報物 指摘을 해 주셨는데 그런 弘報物을 기왕 돈 들여서 發行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느 조그마한 部分이라도, 다만 한 페이지라도 消防車는 불이 났을때 完全히 全額, 1臺가 되었든 10臺가 되었든 無償이니까 女性 主婦들께서 돈에 掛念치 말고 바로 119로 申告를 해서 그때 그때 措置하자 이렇게 하는 弘報를 해 주시면, 또 아니면 班常會報로라도 해서 印刷物을 해서, 저렇게 좋은 카다록을 製作할 때 每年 4월에 하신다니가 4월에 하실 때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겨울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이런 印刷종이 하나에다 印刷를 하셔서 班常會報로 돌려 주시면 서울시 全體 女性이나 全國으로 이것이 다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女性의 한 立場으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실지 女性團體에서 제가 많은 啓蒙도 다니고 물어보았지만 99%가 불난 집에서 負擔한다고 答辯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러합니다. 繼續."여러분 아니니까 安心하고 만일에 불이 났을 때 危險하다면 돈 掛念치 마시고 크든 적든 바로 申告해 주십시오" 해도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消防署에 電話를 해서 確認까지 해 주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弘報가 안 되어서 안타깝다 하는 老婆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

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고맙습니다.

蘇中天 委員 마저 質疑해 주십시오.

○蘇中天 委員; 연이틀 동안 오래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資料를 要請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專門知識도 사실 不足합니다. 電算所에서 住民管理에 있어서 入力項目이 몇 個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일흔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받아본 것인데 그것 말고 한두 가지 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 分野말고, 78個 말고 또 한두 個 정도 들어가 있다. 서울市民의 個人 어떤 情報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들어갈 수가 없지요.

○蘇中天 委員; 아니, 이것은 나중에 제가 거기서....., 여기 資料는 그렇게 왔어요, 78個로. 그런데 두 個 정도나 한 個 정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專門知識이 없어서 제가 지금 質問을 드리는 것인데 없지요, 78個 以上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맹세코 없답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면 제가 나중에 追後 調査하겠습니다. 基本事項에 23가지 種目에서 住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3番에 特殊住所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共同住宅團地에 들어가면 番地數로 表示가 되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番地數 表示 가지고는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住所를 入力한 것이 特殊

住所입니다.

○蘇中天 委員; 特殊住所, 거기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交通違反 基本資料는 어떤 것을 요하는 資料입니까, 交通違反 基本資料, 個人別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룹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車種別, 會社別로 들어가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車種別하고 그 違反回數라고 하면 警察廳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自動車の 違反事項은, 車輛의 違反事項은 犯則금이 있고, 過怠料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警察廳도 必要하고 저희도 必要하고, 그래서 저희는 過怠料를 매기기 위해서 必要한 것이고, 警察廳은 犯則金を 매기기 위해서 必要한 것이고.....

○蘇中天 委員; 그러면 추호도 우리가 資料를 가지고 警察廳에다 주고 그러한 것은 없다 그런 얘가지요, 우리 必要한 資料.....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지요. 저희 必要한 資料이지요.

○蘇中天 委員; 아, 그것만이다. 제가 처음에 質問했던 個人別 入力項目 78個 以上에 나오는 問題가 發生이 되면 다음에 제가 追窮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職業病에 대해서 제가 問議를 좀 했는데 죽 나왔어요, 項目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長期的인....., 文書로 해서 잠깐 提出하는 形式보다도 저희들이 가 보았을 때에는 밑에도 電線이 완전히 다 이렇게 되어 있고, 視野도 그렇고, 옆에 施設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다른 그보다 더한 곳도 職業病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필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아서 그 對策

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電子計算 所長께서는 忠實히 임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대단히 感謝합니다.

마지막으로 委員長으로서 오늘 제가 質問하는 것에 대한 答은 이 자리에서 필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특히 財經 委員會라는 特殊한 性格을 다시 먼 委員會이기 때문에 돈과 關係되는 것을 한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答은 12月을 마감하면서 企劃管理室長께서 우리 委員 全員에게 油印物로 答을 좀 해 주실 것을 前提로 하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委員長으로서 質疑를 해서는 안 되는데, 質疑라는 性格은 띄우지 마시고 우리에게 資料를 公式적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 負債現況과 長期對策인데, 저희들이 91年度 上半期를 마감하면서 서울市民이 1人當 25萬원의 負債를 지고 있고, 92年度 豫算案을 보니까 30萬원 정도의 負債를 지게되어 있는데 實質적으로 負債가 작년도 上半期를 마감하면서 元利 金 償還額이 4,080億원 인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러한 問題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財經委員들은 특히, 그래서 市의 負債중에 특히 地下鐵이 問題가 있는데 地下鐵公社는 99년까지 400km를, 또 完成해서 75% 輸送能力을 갖추도록 안 하면 안 될 形便입니다, 交通難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 여기 對策이 세워져 있을 줄 알고 제가 묻습니다.

市의 負債 中에서 地下鐵 3·4號線 建設 및 運營에 따른 빚이 75.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3期 地下鐵 建設 또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이 말씀하셨던 또는 市長이 施政演說에 밝히셨듯이 都市地下道路,쓰레기 燒却場 等 大形工事의 경우도 工事費의 40% 정도를 빚으로 充當해야 하며, 市の 負債總額은 계속 빚으로, 40%가 빚으로 充當해야 되니까 負債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이지요. 이 서울市 負債 細部現況과 負債解決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長·短期 對策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한 것을 財經委員들에게 資料를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地下鐵 하나로 實質的으로 地下鐵 建設을 위한 負債, 市民의 交通手段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事業이고 또 안 하면 안 되는 不可抗力的인 事業이지만 地下鐵로 인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어 있는데, 2期 地下鐵의 建設 事業費가 그동안 勞賃 및 物價上昇으로 當初 追更建設費 3兆 9,570億원보다 57.9%가 늘어난 6兆 2,500億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市的 地下鐵事業費 財源 調達計劃에 큰 蹉跌이 豫想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함께 既存 地下鐵負債가 75.4%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狀況속에서 第2期 地下鐵建設費 中 절반 가까운 2兆 9,539億원을 借款이나 公債 發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負債性 資金으로 充當하지 않으면 안될 實情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빚더미, 地下鐵로 인해서 서울市的 財政을 完全히 주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市는 地下鐵 建設에 따른 財源確保 計劃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12月 定期會期 中에 일단 우리 財經委員 15名에게 油印物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要求가 무리했는지 모르지만 이 負債 自體가 實質的으로 우리가 가장 念慮하고, 이번 92年度 豫算도 膨脹 豫算에 의

해서 빚을 지지 않으면 안될 狀況까지 豫算을, 빚을 지면서 膨脹 豫算을 編成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10個 常任 委員會가 있지만 특히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所屬 委員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負債現況은 既 油印物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長·短期 對策과 그 다음에 地下鐵 建設 自體는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러한 소상한 問題에 대한 것은 우리 所屬委員에게는 室長님께서 資料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확한 資料에 의해서 市民들이 물었을때 우리 所屬 委員들이라도 또는 全 132 名이라도 答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解決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빚을 지지만 이러 이러한 事業이 相當한 理由가 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說明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日間 1991年度 서울市議會 行政事務監査를 誠實하게 受監한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眞心으로 15 名의 委員과 더불어 感謝를 드립니다. 그간 監査에서 指摘된 各 事項에 대하여 執行部 關係者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是正措置를 하여 주시고, 試行錯誤에 의한 市民의 不平과 怨聲을 사는 일이 없으시도록 努力해 주시기 바라며, 監査를 통해서 느끼신 點에 대한 것은 앞으로 業務執行에 慎重을 기해서 市民이 共感을 할 수 있는 業務執行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狀況속에서 關係公務員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財經委 所屬委員 여러분께서도 정말 市民의 편에서 市民이 궁금했던 모든 點을 質問한 것을 여러분이 100% 滿足할 수 있을 정도의 答은 듣지 못하셨지만 이제 우리 4年 任期를 통해서 市民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공공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 하시라도, 企劃管理室長님 個人的으로도 언제라도 우리 室長室에 오면 各種 궁금한 書類나 資料를 다 提供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個人, 私席에서도 주셨습시다만 우리 最大限 關係公務員 여러분이 괴롭더라도 우리 委員들이 要求하는 資料에 대한 것은 迅速하게, 精確한 資料를 提供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監査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53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杻
孟今龍 車在國 金順愛 李秉守
李敏國 崔丁植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被監査機關參席者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官 康泓彬
投資管理官 金益洙
技術審査官 崔慶竣
電子計算所長 權五鹿
企劃擔當官 金光市
審査分析擔當官 金淳直
豫算擔當官 金禹奭
投資管理擔當官 崔永福
市政開發擔當官 李哲秀

法務擔當官 陳翼喆
統計擔當官 李元兌
技術審查擔當官 金南焄